

머슴에 關한 研究 (1)

Study on the Meoseum

金 炳 台

內 容

序 論

第一編 머슴에 關한 史的 考察

第1章 머슴의 概念

第2章 머슴의 社會的 源泉과 變遷

第1節 머슴의 發生

第2節 甲午改革의 奴隸解放과 머슴

第3節 日本資本主義의 侵入과 머슴

第4節 8.15 解放과 머슴

第二編 머슴과 農地改革

第1章 農地改革의 社會的 經濟的意義

第2章 農地改革의 經緯와 內容

第3章 農地改革과 農村變貌

第4章 머슴의 生活

(次號 繼續)

머슴에 관한 研究 (1)

Study on the Meoseum

金 炳 台

序 論

우리 나라 農業이 家族勞動을 主幹으로 하는 勞動에 依하여 經營되고 資本主義的인 階級分解가 未發達한 狀으로 있다.

이것은 農村人口의 潛在的인 失業狀態의 一形態인 것으로 農業經營 規模가 弱小한 것, 生計補充을 爲하여 各種의 農業部分을 兼行하고 또 農業以外的 여러 가지의 副業을 隨件하고 있는 것, 特히 貧農層에서의 生計 補充의 賃勞動이 많다는 事實은 이에 對한 또 하나의 表現 形態이다. 이 關係는 農業의 資本制下에서 볼 수 있는 農業의 產業的 分化 即 稻作 農家 蔬菜栽培者 果樹園 經營者 養蠶業者 等の 分化를 極히 曖昧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階級的 分解가 不正確하고 產業的 分化가 不明瞭한 狀으로 前資本制的 封建的 社會에서 農業生産이 벌어 벗은 勞動의 集約化에 依해서 만이 維持되고 生計를 補充하기 爲하여 各種의 兼業을 營爲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投下資本의 零細, 貧困의 結果인 過剩人口에 그 緣由를 둔다.

農民의 貧困은 過剩人口의 原因인 것이지 結果가 아니다. 人口를 農村에서 減免시킨다는 것은 그것 만으로서는 何等 生産關係의 生産力 發展을 意味하지 않는다. 投下할 수 있는 資本의 餘力이 없는 狀態下에서는 조금이라도 勞動力을 減少시킨다고 할 때에는 그만큼 生産力 低下를 意味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Ragner Nurkse가 만 하는 農村의 擬裝失業(潛在的 失業) 除去로 同一한 生産水準을 維持하면서 그들의 消費水準을 維持 함으로써 貯蓄을 增加시켜 資本을 形成케 한다는 見解는 적어도 批判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農村에 있어서의 過剩人口 零細農業 經營은 韓國의 資本主義가 걸고

있는 法則의 副產物로서 發生한 것이다. 그것은 먼저 農業의 商品生産化에 隨伴하는 農民의 貧困化, 廣大한 農民層의 土地 喪失이라는 事實 위에 서고 있다. 占有 乃至 所有 名義를 喪失하는 境遇에는 勿論, 債務에 의한 利子 負擔에 의한 全 剩餘의 喪失까지도 包含하는 土地 喪失은 그發端을 李朝末期의 田制紊亂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本格的으로는 農村社會分化的 起點으로 까지 되었다고 하는 日帝에 의한 土地調査 事業의 影響下에 強行되었던 것이다. 韓國의 資本主義는 그 더전이 極히 幼稚하였는데다가 日本에 의한 先進資本主義의 移植으로 強行되어 日本 資本主義의 되두리 속에서 그 植民地的인 役割을 함으로써 展開되었다는 事實은 日本 資本主義의 發展 體系에 影響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 意味에서 韓國 農業의 特殊性이 日本 資本主義發展法則의 副產物로서 造成되었다고도 할 수 있거니와 日本 資本主義가 初期에 있어서 商業資本으로 부터 産業資本에의 急速한 發達을 資本의 本源의 蓄積의 成熟을 기다릴수 없었으며 過重한 軍事 諸 施設을 必要로 하는 事情下에 있었으므로 産業資本 形成에 對하여서는 國家的 育成이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은 財源을 農村에서 調達하였는데 이 財源의 負擔이 自然經濟의 되두리 속에서 行하여진 것이 아니라 近代的 課稅로서 流通 經濟 場裡에서 行하여 졌다. 그것은 農民을 商品經濟에 휩쓰러 넣었으며 經濟事情의 變化는 많은 農民의 家産을 破壞하였다. 資本家的인 資格이 없는 單純한 商品 生産者가 經濟的 變動에 對應하는 힘은 極히 脆弱하기 때문이다. 農民의 商品生産화와 貧窮化와는 併行하고 많은 農民의 土地 所有는 地代 收得者로서의 實質은 勿論 自作農으로서의 名目도 喪失하였다.

農業에 있어서의 實質的 利益은 地主 商人 銀行等에 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農業에 있어서 階級的 分解가 進行되고 나날이 勞動者 階級으로 接近해 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서 析出된 多數의 農民은 그것으로서 곧 賃勞動者 階級的 發生으로서는 되지 못한다. 工業發展의 程度如何

가 賃勞動者 階級은 現實的인 것으로 하는 일치를 취하고 있다.

英國과 같은 資本主義의 代表國에 있어서와 같은 事情과는 달리 韓國 資本主義가 農村에서 析出한 人口을 吸收하는 힘이 極히 微弱하고 多數의 人口가 農村에서 土地 其他의 生産手段을 喪失했음에도 不拘하고 完素한 工業勞動者로서 社會의 沈澱物로 轉換 될 수가 없이 泥濁된 코로이트 狀態를 繼續하는 것이다. 土地所有資格의 強力, 土地에 對한 爭奪, 高率地代, 資本制 農業經營의 不發達, 封建的 生産關係의 再生産은 韓國 農業의 또 다른 하나의 表現이거니와 이 속에서 勞動 集約的 零細農耕, 生計 補充的 兼業을 隨伴하지 않으면 안되는 零細 農耕은 農村人口의 코로이트 狀態의 存在 形態인 것이다. 그리하여 農業에의 投資의 欠乏, 技術의 低水準, 冬季의 半失業, 그리고 農繁期의 勞動力의 不足이 併存한다. 이것이 農村에 있어서의 潛在的 過剩人口이다. 이것은 外見上으로는 均衡狀態인 것으로 間或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農村人口包容力이 탄 越된 觀念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社會的 生産力의 水準에 있어서의 透明的 平均은 아니라도 코로이트가 지니고 있는 不安定한 均衡狀態인 것이다.

이와 같은 農村 過剩人口의 典型的 諸 形態는 뒤 떠버진 國家 及 地方의 農業과 農業的 諸關係의 特殊한 現象으로서 發生 하였다. 農村人口 過剩의 現象 그 自體는 資本主義的 諸關係의 一般的 發展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망정 그 自體에 있어서는 決코 純粹한 資本主義的인 現象이 아니라는 것을 明白하다. 反對로 그것은 이와 같은 諸關係의 未成熟 及 未發達의 結果이고 農業에 있어서의 先資本主義的인 往 往 半農奴制的 諸關係의 殘存物에 不過하다. 이 意味에 있어서 農村人口 過剩의 問題는 資本主義的 社會의 一般 人口問題 及 資本主義 社會의 抽象的 人口法則 과는 다른 問題이다. (勿論 이와 같은 問題와 密接하게 結付되어 있기는 하지 않는)

이러한 條件 밑에 自己의 家族勞動으로서 勞動力의 不足을 招來하는 中農 富農級에 있어서는 自家勞動의 補助로서 自己家族의 一員으로서의

勞働者를 屈辱한다. 屈辱되는 勞働者는 半農奴制的 諸關係의 殘存物으로서의 코로이드 狀態의 農村人口 가운데서 滲出된, 다른 兼業 副業을 할 수 있는 財力도 못가지, 生計를 補充하려는 貧農 或은 팔수 있는 肉體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全然 土地를 갖지 못하는 農民群이다. 韓國 農村에 特徵적으로 나타난 過剩人口의 渦流속에서 勞働者로서 屈辱된 이들은 農村 內部에서 貨金勞働者로서의 農業 勞働者으로 轉化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머슴”이라는 舊時代의 遺制를 內包하는 屈辱關係를 맺은 時代的 脚光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理由는 封建的 土地從屬關係 及 人格의 從屬諸關係의 分解 및 廢滅의 過程과 結托되어 있기 때문이다.

韓國 農業의 近代化의 첫 段階로서 農地 改革으로 土地諸關係의 資本主義的인 改造의 素地를 닦았다고 하면 이것에 못지 않게 重要한 問題로서 第一로 勞働 및 勞働力의 舊來의 先資本主義的 諸條件에 놓여 있는 머슴의 代身에 그들의 새로운 資本主義的 源泉 및 諸形態의 形成의 問題이며 第二로 生産手段의 資本主義的 組織, 從來 支配하고 있던 慣習을 止揚한 合理的 資本主義的 技術의 問題이다. 이러한 命題앞에서 雇工 자리 “머슴”에 關한 研究는 韓國農村의 後進性이란 歷史的인 見地에서 捕捉되어야 하고 農村人口問題로서 捕着되어야 한다. 即 韓國農村 經濟의 全般的인 理論的 分析으로써 그것이 遂行될수 있는 것이라고 보겠다. 이것은 첫 째로 封建的인 領域을 벗어 나지 못하는 그 要因에 對한 研究와, 둘 째로 農民의 貧困化 傾向에 對한 研究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近代化의 研究이다. 即 머슴의 歷史的 性格과 質的 量的 變遷을 通해서 韓國 農村의 人口 問題, 生産關係 乃至 歷史 構造의 特殊性을 드러다 보고 現下 머슴이 지니고 있는 社會的 地位 乃至는 韓國 農業의 歷史的 本質을 論究하는 抽象的인 理論에서 究明된 머슴의 正體를 具體的인 統計로써 一層 明確히 하고 그들의 進路를 살펴 보는 것이 本 研究의 目的인바 이것은 韓國 農村의 進路를 示唆하게 될때 그 目的을 다 하리라고 본다.

第 1 編 머슴에 對한 史的 考察

第 1 章 머슴의 概念

먼저 우리는 卽 貞 植氏 著 “朝鮮 農業機構의 分析” 109面의 1節을 引
쳐 볼수 있다 卽 “머슴”의 實數는 統計上 全然 表示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30萬을 超過할 것이라고 推定된다. 實로 이 “머슴”은 平南의 順川地
方에 殘存하는 幕人制度와 함께 옛 奴隸制의 最後의 遺物로서 이미 消滅
된 過去社會의 暗示를 던져 주고 있는것이 거니와 이 點에 있어서 그는
今日의 賃金 勞動者와는 勿論 封建的 小作農, 半農奴와도 籠罩的으로
嚴密히 區別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嚴密히 區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上記의 兩者 뿐만 아니
라 小農의 家族 勞動 補助를 爲한 農繁期의 몇일 동안만 雇傭되는 日傭
者와도 다르다. 이것보다 더 큰 問題는 奴隸制가 行하여진 時代에는 “머
슴”이 없었던 것 처럼 理解하고 있는데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다음 章
에서 說明될 것이다. 概念規定에 있어 混亂을 避하기 爲하이 먼저 注意
를 喚起시켜 둔다.

韓國 農業에 支配的인 地位를 가진 小農의 性質은 그 定義(自己 家族
과 더불어 通常 耕作 할수 있는것 보다 크지 않고 그리고 家族을 養育하
는데 不足하지 않은 程度의 土地 所有者)가 말 하고 있는것 처럼 첫째
로 原則的으로 家族 勞動에 依해서 耕作되고 他人의 勞動을 搾取하는
일이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 小農은 他人의 勞動의 搾取를 基礎로 하
지 않는다.

그렇지 마는 韓國의 農業은 季節에 따라 繁閑이 差가 많으므로 해서
農繁期에는 家族勞動 만으로는 不足되는 現象을 零細 農家라 할지라도
避할수는 없다. 이때에 몇일 동안 外部 勞動力을 使用하는 것이나 이
것은 決코 剩餘價値의 搾取를 目標로 한 것은 아니며 머슴에서 보는 바

와 같은 主從關係도 없다. 文字 그대로 隣保 相助의 精神이 스며 있는 것이다.

물론 小農은 原則的으로 自己 經營으로 自己家族을 養育하지 않으면 안된다. 萬一 그가 그農業 經營만으로써 家計를 維持하지 못할 境遇에는 다른 方途로써 收入을 늘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에 小農은 머슴으로 轉換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해서는 다음 章에서 詳論 될것이거니와 어쨌든 머슴은 小農이 使用하는 몇몇 일의 被傭者와는 다르다. (他人에게 雇傭되어 農事に 從事한다는 點에는 共通되어 있으나.).

嚴密한 意味에서의 農業勞動者는 農業 그 自體가 資本制 生産樣式에 依해서 支配되고 利潤을 爲한 農業을 經營하는 農場 經營化에 雇傭되는 賃勞動者를 두고 말 하는 것으로 머슴과는 그 本質을 달리 하는 歷史的 存在인 것이다. 이와 같은 農業 勞動者가 存在하기 爲하여서는 卽 資本制 生産樣式이 支配하기 爲하여서는 土地에 對한 自由로운 資本投下를 妨害하는 諸要素가 解消되고 都市에 있어서는 大工業이 發達하고 그 生産樣式이 生産 및 市民社會의 모든 部分을 支配하여 따라서 各部門 資本間의 自由 競爭, 한 生産部門에서 다른 生産部門에의 資本과 勞動의 自由로운 移動의 可能, 平均利潤의 均等한 水準 等の 諸事情이 充分히 成熟되어 있는 것을 前提로 한다.

우리 韓國에 있어서의 事情은 이와는 다르다. 勿論 農地 改革으로 資本의 投下를 妨害하는 要素의 하나인 半封建的인 土地所有 關係는 解消되어 近代化에의 싸움 되고 있다고 할 망정 所謂 農民의 土地所有 形態의 典型을 이루어 自給自足經濟를 原則으로 하면서 都市 商品經濟의 侵入으로 家內 手工業을 掠奪 當하여 窮乏一路에 있는 大部分의 直接 耕作을 擔當하는 農民은 小資本家인 同時에 小企業家이고 勞動者로 되는 封建制度 崩壞期의 現象을 表示하고 勞資가 分離된 資本制 生産樣式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共認 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머슴은 農業 勞動者는 아니다. 主로 家族 勞動에

依해서 營爲되는 韓國 農業에 있어서 米畝은 그 不足을 補充한다는 意味에 있어서는 앞서 든 小農의 農繁期의 一時的 雇傭勞動과 共通된 點이 있다고는 하나 貧困을 克服하기 爲해서 半世襲的으로 中農 以上の 農家에서 1年 或은 10個月이란 一定한 期間을 두고 맺어지는 主人과 米畝과의 關係는 이것이 半奴隸에 가까운 것인데 印貞植氏는 이를 가르켜 “奴隸制의 破片”(註1) 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註1) 印貞植著 “朝鮮農業 機構의 分析” 72面

즉 米畝은 農家에 드려 農事 뿐만이 아니라 家事 全般에 從事하고 日中뿐만 아니라 夜半에 이르기 까지 일 하고 있으며 主人의 家族이一部分을 이루어 大部分은 그 家屋內에서 起居하고 食事 및 衣服 술, 담배, 까지 提供받는 定傭인 것이다. 端的으로 말하면 貨金이 形式으로 雇傭關係를 맺는 定期의 奴隸(實質的인 意味에서)라고 斷定할 수가 있다.

米畝은 常例로서 몇해를 繼續하여 同一主人에게 雇傭 되는 때가 많다 따라서 그地位는 安定 하다고는 할 망정 進取性이 적고 또 雇主는 必要가 없는 때도 雇傭하지 않으면 안되는 不便은 있으며 이와 같은 不便은 米畝에 對한 搾取의 口實이 되어 雇主에게 끼치는 損害는 조곰도 없는 것이다.

이때의 主從 關係라는 것은 民法上的 雇傭關係 뿐만 아니라 因襲的身分的인 道德上的 關係도 있어 여기에 社會問題로 提起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政策上的 對象에서 恒常 除外 되었다는 것은 這般의 農地改革이 實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米畝은 漸次 都市 資本主義의 侵入과 더불어 都市 近處 農村에서는 因襲的身分的, 隸屬的, 道德的 關係에서 떠난 農業 勞動者에로 轉化하는 傾向과 可能性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이것은 極히 緩慢한 템포라 할것이다. (註1)

(註1) 論者が 直接 目擊한 바에 依하면 晉陽郡 奈洞面 內坪里(晉州市에서 西方 8軒 地點으로서 江을 끼고 있는 交通 不便한 部落임)에서는 米畝을 부르는 姓이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미설’라고 부르는 것을

본에 이것 만으로서도 因襲的인 隸屬關係가 그대로 表現되어 있는 것이다.

머슴의 種別을 살펴 보면 그 새경(年報酬)에 따라서(勞動 能力에 따라 部落에서 定評된) 上머슴 中머슴이 있는데 地方에 따라 上머슴은 入家時(쿨 새 경), 退家時(날 새 경)이 2朋로 나누어 粗穀(粃) 5~9石, 上머슴과 中머슴의 兩者의 差異는 2~4石의 差가 있고 老年者 및 年少者 머슴으로 “꼴담사리”라고 있는데 이에 對해서는 食事와 衣類를 提供할 뿐 그 밖의 報酬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上머슴이라고 하면 普通 25~6歲 以上 42~3歲 未滿의 農事經驗이 豊富한 壯年層이요 中머슴이라고 하면 普通 20歲에서 23~4歲의 青年層과 45~6歲에서 52~3歲의 中老人層이며 꼴 담사리는 大概 18~9歲 未滿의 年少者와 55~6歲 以上되는 老年層이 該當된다. 勿論 이것은 嚴格한 區分이 아니고 少年層, 青年層이라 한지라도 그 能力에 따라 中머슴 上머슴의 待遇를 받는 例도 있는 것이 實情인데 部落의 定評을 받지 못한 머슴으로 그 사이에 몇 段階의 階層을 이루고 있는 것이나 이는 主人과 머슴의 相互 協定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이 외에 半머슴 달(月)머슴——季節傭——이 있는데 半머슴은 年雇의 半의 報酬를 받거나 一定한 農土와 家屋을 貸與받아 隔日 或은 隔五日로 自己 일과 雇傭主의 일을 半씩 해 주는 것을 常例로 하고 農土를 貸與 받았을 때에는 이는 實質的으로 勞動地代의 形態로 雇主에게 緊縛되는 農奴 乃至는 隸農을 象徵하고 있는 것이다.

農村에 있어서의 季節傭은 農繁期에 1~2個月 雇傭되는 것으로 이는 머슴에 比해서 因襲的인 隸屬關係가 薄弱하고 賃勞動者의 性質은 多分히 띄고 있는바에 差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머슴의 稱號에 對해서 地方別 方言을 收錄하여 그 考察에 便宜를 資한다. (註1)

머슴 (全北) 茂朱 (慶南) 蔚山, 梁山, 東萊
釜山, 金海, 馬山, 晉州, 咸陽, 居昌

陝川, 昌寧, 密陽, (慶北), 永川, 慶州
 大邱, 高靈, 金泉, 義城, 咸昌, 聞慶
 醴泉, 安東, 榮州, 青松, (忠南) 江景
 扶餘, 鴻山, 青陽, 舒川, 藍浦, 保寧
 廣川, 洪城, 海美, 葛山, 天安, 烏致院
 (京畿) 長湍, (江原) 寧越, 平昌, 原州
 橫城, 洪川, 麟蹄

머슴 (全南) 長興, 唐津, 羅州, (全北) 南原
 群山, 全州, 任實 (慶北) 浦項, 盈德
 尙州 (忠北) 清州, 忠州, 丹陽
 (京畿) 서울, 漣川 (江原) 襄陽, 江陵
 三陟, 蔚珍, 平海

머슴 (全南) 突山, 麗水, 順天, (全北) 雲峰
 南原 (慶南) 馬山, 巨濟, 統營, 南海
 河東 (慶北) 興海, (忠南) 公州 (京畿)
 連川

머슴 (全北) 全州, 任實 (忠北) 鎮川, 槐山

담자리 (全北) 南原, 任實

도자리 (濟州) (註2) 城山, 西歸浦

작남 (濟州) (註3) 濟州, 城山, 西歸浦
(作男)

(註 1) 小倉進平著『朝鮮語方言의 研究』

上卷 76面에 記 轉記

(註2, 3) 原本에는 全南으로 되어 있는데 當時는 濟州島가 全南에 分離
 되어 있었을 때 임으로 本論에 記는 便宜를 보충기 爲하기 濟州道
 라고 改記함

第2章 머슴의 社會的 源泉과 變遷

第1節 머슴의 發生

社會經濟의 變遷에 따라서 農村 被傭者로서의 머슴은 그 質과 量에 變遷을 가지 오고 있다. 卽 發生 端初에 있어서의 史的 背景과 今日의 머슴이 處하는 史的 背景과는 判異한 것이며 그 사이에 質的 量的 變遷은 複雜한 契機를 內包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本章에서 資料가 許容하는 限 試論을 加해 보려 한다.

順序로서 먼저 이 머슴의 語源을 찾아 멀리 新羅時代에 까지 遡及하여 보자 新羅時代에 있어서 “머슴”이라 함은 “男”을 가르켜 말한 것이다. 高句麗의 故地에서는 “男”을 “자네”라고 불렀는데 對하여 이것은 新羅의 獨特한 語系라고 할 수 있다. 卽 이것을 反證하는 것은 新羅故地의 方言 “머스메” (男兒)란 말의 分布狀態이다 卽 男兒를 “머스메”라고 부르고 있는 地域은 所謂 下三道 (忠淸, 全羅, 慶尙)인데 北方 諸道의 “자네 아이”란 말과 對抗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新羅의 故辭라는 것은 틀림 없다

下三道의 方言 가운데 新羅의 故辭가 尙今도 사라 있다는 것은 이 地方에 10餘世紀 동안이나 盛昌한 新羅文化를 말하는 것이나 高麗 및 李朝를 거치는 約 千年이탄 歲月은 이 由緒 있는 “머슴”의 地位를 顛倒하여 이 單語가 오늘날 中央에서 使用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벌써 “士”로서의 “男”이 아니고 雇工으로 轉換되어 버린 것이다. (註1)

그러면 이 雇工으로서의 머슴은 어느 時代에 發生하게 되었는가? 이에 對해서는 아직껏 文獻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머슴”이란 語源에서 미루어 볼때 新羅時代에는 없었던 것이 分明하고 因襲的인 諸關係에서 推測하건대 奴隸勞動의 地位가 零落된 古代社會 末期 封建社會 初期에 發生한것으로 羅末 麗初에 該當될가 생각 되는데 農奴 乃至 奴隸勞動에 依持하지 않는 中農 以上の 存在가 前提되어 있다는 것은 斷定 할수있

다.

論者が 얻은 文獻에 依하면 그 數는 明確하지 않으나 李朝 初期에는 벌써 盛行하고 있었던 듯 하다. 李朝 時代に 있어서 戶籍作成은 屈出主義에 따라 그 申告에 依해서 前번의 戶籍과의 異同을 調査한 然後에 原簿에 登載하였는데 이때 屈出項目中에 “머슴”이 드러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이다. 即 經國大典 卷之三 禮典 戶口式에

戶某部·某坊·第幾里^{外 則 稱 住 某職·姓名·年甲·本貫·四祖·妻某氏·年甲·本貫}
面·某里·

四祖·宗親錄自己職衙妻四祖·儀賓錄自己職衙·四祖·尙某主·庶人錄 率居子女
自己及 妻四祖·庶人不知四祖者·不須盡錄.

某某年甲·女婚則并^{錄 本 貫}奴·婢·雇工·某某年甲

으로 되어 있다. (註2)

李朝 時代의 머슴으로서의 雇工은當初에 經濟的 困窮에서 發生한 것은 물론 없은 일이나 이것은 封建時代의 特徵인 身分的인 Hierarchie에 依據한 하나의 階層으로서 確定되었던 것이라고 할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 徹底한 Hierarchie는 兩班 庶人을 雇工으로 두지 않았을 것이며 때로는 雇工奴라고 불려 奴隸와 同一視 하였다는點이다. 여기서 注意할點은 머슴이 奴隸와는 그 概念이 다른 하나의 歷史的인 產物일 것으로서 印貞植氏가 말 하는 奴隸制의 最後의 遺物은 아닌 것이다. 即 머슴은 奴隸의 生産性이 低下되고 곳곳에서 烽起를 이트킨 羅末(尙州 原州의 反亂 弓裔 甄萱의 亂)은 前後하이 元來가 貧困하였던 生産奴隸는 解放되었거나 或은 待遇에 改善을 가져와 이의 後身으로서 머슴이 여기에 代置되었던 것이다

封建社會에 있어 常民 또는 賤民에 屬하는 被支配 階級の 貧困에서 造成된 머슴은 머슴의 需要層인 中農 富農 大農의 數交에 左右되는데 農業人口의 絶對的 相對的인 增加로 一般的인 零細化와 封建支配層의 壓力에 對견된 堅實하였던 中農層의 沒落과 더불어 머슴의 需要는 減少되는 한편 支配層의 苛斂誅求로 農民의 貧困이 激化되어 머슴의 供給이 더욱더커져 있었다는 事實은 우리가 쉽사리 判斷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事情은 羅末 麗中末期에도 볼 수 있거니와 가깝기는 李朝末期의 稅政下에 더욱 顯著히 나타난 것이며 더욱이 賣官 賣職이 盛行한 때는 兩班의 威信이 땅에 떨어지자 그의 一族들은 漸漸 窮乏 一路를 걷게 되어 마침내는 일찌기 보지 못하던 兩班의 宗中에서도 머슴을 供給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註3)

더구나 近來에 와서는 兩班의 勢力的 土蠹들 이두는 土地라든지 官祿이 全然 無視되자 머슴 自體에 對한 兩班 常民의 論議의 餘를 조차도 없이 머슴 中에는 過去의 所謂 兩班 宗中 出身者도 許多하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資本主義의 封建制度에 對한 하나의 克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머슴의 質的 變化는 이것 뿐만 아니라 當初도 그러 하였지 마는 다음 章에서 論하게 되는 甲午改革을 契機로 奴隸로 부터의 轉化가 盛行하였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量과 質의 變遷의 要因을 念頭에 두고 韓國 農村의 劃期的인 契機을 이두는 甲午의 革新과 1918년에 끝난 日帝에 依한 土地 調査事業을 들고 이것이 머슴의 量質에 미친 影響과 나아가서 農村內部的 構造的 矛盾을 살펴 보자.

(註 1) 京城帝大 文學會 論集 第十一輯 河野六郎著 朝鮮方言學試攷 20—232面 參照

(註 2) 經國大典 中樞院版 327面(傍點 論者)

(註 3) 當年 65歲되는 中央大學校 守衛 朴泰畿氏所談

第2節 甲午改革의 奴隸解放과 머슴

日帝의 韓國에 對한 植民政策은 1876年(李太王13年)에 締結된 釜山外 2港을 外國通商을 爲해서 開放한다는 것을 內容으로 한 江華條約으로부터 始作 되었다. 이것이야 말로 四方 博氏가 適切히 말 하고 있는 바와 같이 東洋에 있어서의 ‘開國運動’의 最後의 完成이며 또한 近代 資本主義의 世界的 征服의 Chain에 하나의 Ring을 連鎖하는 것이지만 資本主義의 發展에는 먼저 資本形成과 아울러 自由로운 값싼 無產勞動者의 存在를 前提로 한다 이터 함께 主眼을 가진 日本 植民政策의 要請

에 依하여 이른바 開化黨이 主幹이 되어 國內의으로는 資本主義의 曙光도 비치기 前에 1894年 所謂 甲午改革으로서 封建的인 身分의 從屬 關係를 廢止함으로써 近代化를 爲한 社會的 改革을 꾀하였으나 淸日戰爭에 휩싸인 帝政 露西亞의 勢力과 日本 勢力과의 衝突 나아가서 內政의 混亂 등으로 法的 効力を 가지지도 못했지만 資本制的인 經濟的 背景이 없는 이 마당에 制度的 牽引인 것이 實効를 걸을수 없다는 것은 當然한 것으로서 實質的으로는 舊態 依然 하였으며 生産手段인 土地의 小作 乃至 占有權 조차도 없는 그들 中에는 典籍없는 解放된 奴隸의 形態(머슴)로 轉化된 境遇가 許多하였다는 것이다(註1)

即 李朝 末葉의 稅政으로 田制는 紊亂하여져 土地의 兼併이 進行되는 한편 宮室 富家의 庄土를 비롯하여 大官 및 地方 兩班의 土地의 私有化가 盛行 되었다 이에 따라 本來王田의 佃夫이던 耕作 農民은 私的 土地 所有者에게 隸屬되는 小作人으로 轉化되었는데 土地의 兼併과 私有라는 두 條件은 머슴에게 對한 需要의 增加를 齊來한 것은 事實인 것이다. 이리 하여 小作農에서 轉落된 貧民層과 奴隸解放이 過去의 因襲을 남긴채 徹底히 遂行되지는 못했을 망정 典籍이 廢棄된 奴隸는 여기에 多少間에 (數字에 對하여서는 文獻을 얻지 못함) 머슴의 形態로서 轉換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貧困의 社會的 造出과 함께 奴隸解放을 契機로 머슴의 供給도 增加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情은 當時의 머슴의 年報酬(年報酬)으로써 反證할수 있는 것으로 當年 70歲 되는 老人의 說話에 依하면 世紀的인 農民戰爭으로 알려진 甲午年의 東學亂으로 被支配 階級에 對한 收取關係가 緩和되었다는것은 考慮할때 上 머슴의 年報酬가 入家時(올새경) 1石, 退家時(날새경) 1石 計2石을 上下 했을 뿐 奴隸解放을 前後로 別다른 待遇 改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머슴의 供給이 需要보다도 많았고 있었다는 것을 反證하고도 남음이 있다.

(註 1) 當年 80歲의 一老人의 說話

第3節 日本 資本主義의 侵入과 머슴

1905年 所謂 乙巳 保護條約을 契機로 한 保護政治의 開始와 함께 始作하여 1918年11月에 終了한 이른바 土地調査 事業은 封建社會의 胎內에서 土地의 封建的 占有의 近代的 私有에의 轉化가 마침내 純封建的 土地所有關係를 解體시키고 있었다는 事實에 立脚해서 封建的 制限束縛의 撤廢 封建的 土地所有의 廢止를 強力히 遂行하여 土地私有制度를 法으로 確認 함으로써 自由로운 土地所有의 原則을 樹立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依하여 現實적으로 土地의 私有權을 獲得하고 封建的 制限 束縛에서 解放된 者는 土地所有者로서의 地主 및 富農의 一部에 不過하고 一般農民도 그들이 土地 所有者인 限에 있어서는 一段 封建的 制限 束縛에서 解放되어 自由로운 土地 所有者로 되었다고는 하지 마는 그들에 있어서는 封建的 拘束에서 부터의 形式的인 解放은 어더가지 困難한 事情때문에 그들의 大多數는 곧 土地 所有 그 自體로 부터서도 解放되고 分離되는 것을 意味한에 不過하였다(註1)

이와 같이 韓國에 있어서의 近代的 土地私有制度는 確立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두말 할것도 없이 國內의 社會的 生産諸力의 發展에 基礎를 둔 社會的 要求로서 遂行된 것이 아니고 當時에 急遽한 發展을 이루고 있던 日本 資本主義의 要求에 依해서 成就된 것이다. 이 짧은 間에 土地 調査事業은 農村 社會의 새로운 階級分化에 廣範한 通路를 여겨 주었다. 앞서 든 바와 같이 李朝 末葉에 있어서도 이미 封建社會의 胎內에서 土地의 封建的 占有의 近代的 所有에의 轉化의 萌芽가 싹 드고 있었다고 할 망정 그것은 決코 極部的인 現象에 不過하였고 社會改革의 物質的 基礎는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露日戰爭後 日本의 植民地로서 日帝에 依한 改革이 기어코 미치고서야 마왔다. 이와 같이 해서 이루어진 土地調査事業은 農村社會의 새로운 階級分化의 起點으로서의 特質(註2)을 가지 오게 한 것이다.

即 土地領有의 近代的 性質과 封建社會로부터 그대로 踏襲된 零細農的 生産樣式과의 矛盾이라는 基礎위에 進行된 資本一般의 壓力——工業品의 農村 侵入으로 만미압아 耕作과 直接的으로 結合된 農家 自家用的

手工業의 破壞, 農民 貨幣慾의 急激한 增大, 零細農의 生産樣式에 必然的으로 隨伴하는 生産物 販賣價格의 低廉과 이와는 反對의 購入品(工業品)의 獨占價格 銀行資本 商業資本 高利貸資本 諸種의 農民 負擔, 租稅制度, 專賣制度, 水利組合費 等등의 壓力으로써 異常하게 深刻化하여 總體的으로 農村社會의 새로운 階級分化的 過程에 拍車를 加하였던 것이다. (註3)

이러한 가운데 零細農은 結局 沒落하고 가는 것인데 小土地 所有者로서의 自作農 및 自作 兼 小作農의 累進的 沒落 半無產者 小作農의 累進的 增加 및 小作地(地主 所有地)의 擴大에로 나타나고 또한 半 無產者의 副業農家, 兼業農家の 增加, 農村 被傭人 (大部分 머슴), 離村 農民의 增加(第1表) 그리고 國外 移住農民의 增加로 나타 났다. (註4)

第1表 農業者 轉業狀況

內 容	數 (名)
勞働者 其他 被傭人	69,644
日本出稼者	25,308
商業에의 轉業者	23,725
工業 및 雜業에의 轉業者	16,839
一家離散者	6,835
西伯利亞出稼者	1,090
其他轉業者	3,497
計	150,112

資料 內務局 社會課發表 農家經濟에 關한 調査(1925年刊) -當時 1個年間 (1924年) 朝鮮 農會刊 朝鮮 農業發達史(發達篇)49面에서 引用

土地 調査 事業이 農村社會의 階級分化에 기다란 役割을 했음에도 不拘하고 이와 같이 土地所有에서 分離된 農民들이 都市 勞働者 農業 賃金 勞働者로 轉化되지 못하고 零細農 및 小作農, 머슴으로 또 다시 再編成되어 이 關係를 擴大 再生產 했다는데에 問題의 要鍵이 있다. 卽 土地 調査事業이 自作農 및 自作 兼 小作農을 犧牲시켜 兩極端을 發展

시키면서 一極에 있어서의 地主層(富農層 包含)과 他極에 있어서 머슴을 비롯한 半 農奴的 貧農層(小作農)을 擴大시키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 原因으로서는 韓國의 農業이 過去에서부터 繼承한 高率의 小作料——半 封建的 高率地代——라는 制限 때문에 農業生産에 있어서 資本家的 經營의 利潤의 成立을 不可能하게 하고 따라서 農業生産에 있어서의 資本家的 生産方法의 發達을 阻害했던 것이다. 即 資本家的 小作 農業者(農業企業家)의 發生을 阻害하였던 것이다. 또 하나의 原因으로는 日本의 獨占工業에 依하여 韓國內에 있어서 工業의 獨自의 發展이 阻害 當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社會的 背景을 가지는 머슴은 그 數에 있어서 龐大한 것이며 그 質에 있어서 李朝의 雇工奴라는 身分的 階層은 이미 消滅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生態라든지 그들에 對한 社會的 認識은 尙今도 奴隸制의 破片으로서 그因襲이 傳해지고 있는 것이다.

머슴의 數에 對한 統計上의 發表는 1933年에 비토소 나라 났는데 1932年 以來 所謂 自作農 創設事業 이 進行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그戶數는 激增하고 있었다. 即 1933年에 農業被傭者 戶數가 94,000이던 것이 4年後인 1937年에는 117,000으로 激增하고 있는데(註5) 勿論 農業 被傭者가 모두 머슴은 아니다. 그러나 그 大凡을 이루는 것은 머슴인 것이며 여기서 알고져 하는 것은 그 數字的인 正確한 把握보다도 그 增加의 趨勢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가져 오게 된 社會 經濟的인 要因인 것이다.

(註1,2) 朴文圭 ‘農村社會分化的 起點으로서의 土地 調査事業에 對하여’
京城帝國大學 法文學會 第一部論集 第六冊 朝鮮社會 經濟史 研究 所載論文 525面

(註3) 同. 上掲書 557面

(註4) 同. 上掲書 558面

(註5) 朝鮮農會, 朝鮮農業 發達史(發達篇) 56面

第4節 8.15 解放과 머슴

日政 末葉의 苛酷한 供出制度는 農村에 있어 시의 最後의 피란 場所

까지 남기지 않았으며 當時의 食糧難의 解決과 戰亂의 避難을 目的으로 한 都市 中小 商工業者들의 農業에의 資本轉入으로 從來의 小作人이 小作料만 내고 있던 것이 在村地主의 家事에까지 關與하지 않으면 안되는 歷史發展의 逆現象을 招來하고 農民의 貧困은 度を 加하였다. 當時에 있어서는 過剩人口는 어느 程度 緩和되었다. 그理由는 두 말 할것도 없이 帝國主義 戰爭을 遂行하기爲한 人的 資源으로서 過剩人口는 勿論 最低限의 必要人員 까지도 吸收하였다. 그러므로 해서 從來의 머슴은 그 數에 顯著的 減少를 招來하였다.

第2表에서 보는 바와 같은 被傭者의 減少는 一時的인 奇現象인 것이며 農村收奪이 農民의 階級分化에 直接으로 作用한다는 것은 그 다음의 數字가 雄辯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即 中日戰爭 第2年째인 1938年 부터 被雇傭者數가 차차 減少 一路에 있었는데 이것은 앞서 말 한바와 같이 軍需 鑛工業의 勞務擴充 및 強制徵用에 依한 影響이었지만 日帝의 收奪으로 인한 轉落은 마침내 蔭蔽될수 없이 1943년에는 小作農의 激減과 아울러 被傭者는 增加 되었다. 事實을 두고 말 하더라도 小塊의 土地를 小作하는 것으로는 諸般 收奪을 敢當하지 못하며 그收入이란 것이 雇工 자리 하는것 보다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第2表 小作農家와 被雇傭者의 趨勢

	小作農家(戶)	被雇傭者(戶)
1936	1,583,622	116,963
1937	1,581,428	117,041
1938	1,583,435	116,020
1939	1,583,358	111,634
1940	1,616,703	101,606
1941	1,647,338	92,654
1942	1,641,702	95,778
1943	1,481,357	130,377
1944	980,752	—
1945	1,009,604	—
1946	923,686	—

資料：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29面

이 時期에 發生되었어야 할 農村의 相對的 過剩人口 問題는 8·15解放과 함께 集中的으로 表現되었다. 이것은 마치 붓물이 터진것 처럼 農村으로 쓰러져 드러왔다 過去나 現在나 農村은 人口收用의 彈力性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韓僑의 社會問題化 되었던 歸還同胞 問題이다. (第3表 參照)

第3表 南韓人口 推定數 (1948. 5. 1現在)

16,563,317 (A).....	1944, 5, 1現在南韓人口
-- 462, 507 (B).....	日人 退去者數
+ 2,072,011 (C).....	解放後在外同胞歸還者數
+ 257,644 (D).....	自然增加數
計 18,432,465.....	1948, 5, 1現在推定人口數

資料, 朝鮮經濟統計要覽 1949年版

- 1, A·B는 朝鮮銀行經濟年報 1948年版
- 2, C는 1948年2月分 美軍月例報告(2月現在)
- 3, D는 1946年厚生部 調査, 南朝鮮人口動態調査

이를 大部分은 完全한 飢饉으로 轉落될수 밖에 없었다. 都市에서 飢餓을 찾아 流浪하다가 窮極에는 農村에 還流하여 表面的으로 包攬力있는 農村의 苛酷한 現實속에서 드러 오게 되는 것이다. (第4表 參照)

第4表 農家戶數 및 農業人口

年度	戶 數 (戶)	人 口 (人)	扶養人口數(人)
1942年	2,123,281	12,232,591	6,649,533
1945年末	2,165,477	12,488,855	6,832,165
増減	+ 42,196	+ 256,264	+ 182,632

資料: 朝鮮 經濟年報 1948年版

第4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村에 還流된 人口 256,264名의 72%인 182,632名이 歸農이 아니라 寄農인 것이다. 即 農民으로서 生産에 從事하는 것이 아니라 農家に 드러 寄食하여 農家の 扶養人口로 化하고 農家經濟의 逼迫을 激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貧困한 家計는 더욱 더욱 貧困해지고 그러다가 一部는 農土를 버리고 失業者로 化하고 (第5表) 兼業 副業이 大幅的으로 增加하고 그것마저 못하는 農民은 머슴으로 轉落되어 그들의 糊口를 爲하고 生計를 補充시키는 것이었다. 8.

15가 齎來한 農村人口 問題는 이것뿐이 아니었다. 日人이 남기고 간 諸般 産業 施設은 經營難 技術難으로 全般的인 運休狀態에 빠졌다. 그 結果 일터를 잃은 都市 勞動者層은 또 農業으로 몰려 드렸다. (第6表)

第5表 前職業別 失業 無職者 實態調査 1946, 11, 15現在

失業前 職業	戰災	失業	計
工場事務場	106,877	81,078	187,955
鐵山事業場	79,553	43,245	123,533
運輸事業場	13,794	21,171	39,965
土建事業場	67,599	74,135	141,784
事務所商店	62,983	48,364	111,347
農 業	125,594	84,693	210,287
其 他	176,003	111,784	287,787
合 計	637,203	464,520	1,101,723

備考 南朝鮮 過渡政府 勞動部 調査

資料：1949年版 朝鮮 經濟統計要覽에 依함

第6表 産業別 事業體 及 勞動者의 縮少(南韓)

	事 業 體 數				勞 動 者 數			
	8·15以前	8·15以後	減 少 數	減 少 率	8·15以前	8·15以後	減 少 數	減 少 率
工業總數	9,323	5,249	4,704	43.7	300,520	122,159	178,361	59.4
鐵 業	1,239	55	1,184	—	179,826	4,660	175,166	—
運 輸 業	1,427	259	1,168	—	80,128	10,183	69,954	—

備考 1) 工場總數 : 8·15前數字는 1944. 6現在調査 朝鮮總督府 勞務統計調査結果報告에 依함

8·15後數字는 1946. 11. 現在調査 美軍政廳 中央經濟委員會 南朝鮮 産業勞務力 及 賃金調査에 依함

2) 鐵 業 : 8·15前數字는 1943. 6. 現在 調査 前掲 勞務調査

8·15後數字는 1947. 8. 現在 調査 美軍政 勞動部 勞動技術報告 中の 職工欄의 數字

3) 運 輸 業 : 鐵業과 같음

但, 鐵業, 運輸 兩部門은 兩比較年度 調査의 範圍가 各各 다른 으로 減少率에 正確을 期할수 없다. 다만 參考일뿐

4) 官民營을 總括

資料: 1949年版 朝鮮 經濟統計要覽에 依한

우리가 여기서 注意해야 할 일은 農村人口가 이렇게 絶對적으로 또 相對적으로 增加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小作農家の 減少의 傾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第2表) 그 理由를 瞥見하건대 北韓의 土地改革으로 因하여 不安을 느낀 地主層의 土地放賣에 그 原因을 찾아 볼수 있다 即 가까운 將來에 土地改革이 있을 것과 그 實施에 따라 土地資本의 喪失 이라는 데에 不安을 느낀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小作人은 그 當時의 情勢로 보아서 土地改革의 時機가 豫測하기 어려웠다는 것과 地主의 自己利益을 爲하여 土地를 他人에게 賣却함으로써 發生되는 小作權의 移動에 對한 念慮및 土地에 對한 農民의 所有慾과 愛着心이 無批判적으로 强하였던 것 日帝에 依한 收奪이 停止되고 小作料 3.1制 實施로 一般農民의 經濟的 實力이 多少 潤澤하여 진것, 그리고 穀價가 高騰하여 比較的 容易하게 土地價格을 調達할수 있었던 것 등을 들수 있다. 이와 같은 土地의 賣買狀況은 1946年 秋期서 부터 1947年 春季까지에 大적으로 行하여 졌는데 이로 말미암아 小作人들은 土地를 買入하려고 農牛와 家財를 放賣하고 高利의 負債를 질머지는 農民이 不少하였다.

農村人口의 增加와 小作人들의 土地買入은 必然적으로 經營面積의 零細化를 招來하였는데 그 平均耕作面積이 1944年 1.55町步이던 것이 解放後 南韓에 限하여 이것을 볼때 1946년에는 1.25町步로 되어 零細性은 더욱 甚하여 진 것이다. 이와 같은 零細性과 高利負債는 自作農으로 된 意義도 發揮하기 前에 다시 零落되는 境遇가 許多하다. 即 이와 같은 小作人들은 그러한 零細한 土地의 耕作을 自己 家族에게 맡기고 自身은 他方面으로 出稼하게 되었는데 大概 이들은 半머슴 또는 머슴으로서 그 收入을 補充하고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土地 自由兼併(註1)으로 土地를 買却하고 全然 土地가 없는 머슴으로 轉換되기도 한다.

(註 1) 이대의 土地兼併은 大地主에 依해서 行하여진 것이 아니고 富農層에 依한 兼併이다

第 2 編 머슴과 農地改革

第 1 章 農地改革의 社會的 經濟的 意義

이미 우리가 周知하는 바와 같이 韓國은 日帝에 依한 土地 調査事業으로써 封建的 土地國有 形態를 制度上으로 清算하고 近代的 土地私有 制度를 確立 하였다. 그 結果는 封建的 收租權者를 土地所有者로 認定하고 現實的 土地 占有者이며 耕作者인 數百萬의 農民이 土地의 占有權을 剝奪 當하는 卽 小數의 大地主와 數 많은 小作人이란 兩極을 마련 하였다. 日本의 資本 蓄積과 増殖을 爲하이서는 韓國의 唯一의 産業이던 農業이 그 源泉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10년에는 이미 6萬 8千町步에 達한 日人 所有農地에 對하이서는 勿論 앞으로 日帝 資本이 直接 土地에 投下될 境遇에 높은 利潤을 見출수 있게 하기 爲하이서는 첫째로 高率 小作料 制度의 存續이 必要하였다. 둘째로 日本資本이 農業部門에 貸出되이 높은 利潤을 保障받기 爲하이서는 높은 地代가 그 土產을 이두위야 하였고 또 이와 같은 農業金融의 高利潤이 金融資本一般에 高利潤을 保障할수 있다. 셋째로 高率의 小作料로 農家經濟가 困乏하면 이곳에 相對的 過剩人口가 造出되고 이들은 低廉한 工場 勞動力의 大量 造出을 可能하게 한다. 넷째로 日本의 原料 供給地 特히 食糧供給地로서 低廉한 穀價를 維持하며 農產物의 商品化率을 높이기 爲하이서는 高率의 小作料 制度가 必要하였다. 다섯째로 植民地 統治의 安全을 爲하이서는 從前의 支配者 卽 收租權者와의 連結을 強化하여야 하고 그러기 爲하이서는 收租權을 小作料 總收權으로 代替한다는 것이 要請되었다. 그러한 理由로 日本 帝國主義는 收租權者를 土地 所有者로 認定 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土地所有 諸關係의 半封建性은 殘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諸關係 위에 日帝下의 地稅改正은 零細한 自作農에

세 經濟的 重壓을 加하여 그들로 하여금 所有耕作地를 放賣하고 小作農으로 化하게 하였으며 이미 우리가 살펴 본 바와 같이 資本主義의 農村 侵入으로 自家用 家內工業의 農業으로 부터의 分離, 貨幣的 需要의 增大에 따르는 農產物 特히 穀類의 飢餓的 商品化 養蠶, 棉作, 藥工品 등이 農家副業으로서 商業資本 產業資本에 隸屬된에 따라 農家經濟의 疲弊는 累進되어 自作農의 小作農化, 零細農民의 債務農化, 雇工化가 더욱 顯著하여 졌다 이와 같이 土地所有의 集中이 促進되었으며 勞動 收用力이 微弱한 工業發展下에서 小作農과 雇工이 激增되었던 것이다. 即 1913年 부터 1917年에 이르는 5個年間の 平均數와 20年後인 1933年 부터 同 37年에 이르는 5個年間の 平均數를 比較하면 自作農의 比率은 21.7%에서 19.2%로 減少되었고 自作兼 小作農도 38.8%에서 25.6%로 減少된데 反하여 純小作農은 39.5%에서 55.7%로 大幅 增加하였다. (註1)

이러한 農家戶數 構成의 質的 變化는 耕地構成率에도 그대로 反映되었다. 即 1918년부터 同 22年 까지의 5個年間に 있어서 總耕作 面積의 50%에 達하던 自作地가 15年後인 1933年 부터 同 37年에 이르는 5個年間에는 43%로 減少된 反面에 小作地는 50%에서 57%로 激增되었던 것이다. (註2)

(註1.2) 鈴木武夫 著 朝鮮의 經濟

土地 所有의 集中 小作地의 增大는 더욱이 小數의 大地主에로의 土地 集中을 意味한 것이니 1942年の 5町步 以上の 地主의 總數는 8萬9千名으로 그들이 所有한 總耕作地는 畓 71萬1千町步 田 53萬6千町步 合計 124萬 7千町步에 達한다. 그러므로 5町步 以上の 地主의 所有 耕地는 畓에 있어 畓 總面積의 40.2% 小作畓 總面積의 59.2%를 占하여 田에 있어서는 田 總面積의 19.7% 小作田 總面積의 32.7%를 占하는 顛倒的 比率이다. 小數의 地主가 獨占的으로 田畓을 所有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로써 더욱 明白히 된다. 뿐만 아니라 巨大地主의 所有地는 畓에 集中되고 있으며 그것도 位置, 灌溉施設, 土質等 質的으로 有利한 平野地에 集中되고 있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生産關係에서 資本主義的 利潤이 成立 될수 없었고 따라서 農業生産의 資本主義化가 不可能 하였던 것이다. 卽 高率의 小作料에 該當하는 賃貸料을 支拂하고 土地를 借用하여 資本主義的 農場經營을 한다는 것이 困難하므로 農業企業家の 介在에 依한 營農의 改善, 또는 資本主義化가 不可能 하다. 地主는 既得된 所有地에 土地改良, 耕種法 改善을 爲하여 資本을 投下하기 보다는 그 資本으로써 新規로 土地를 購得하여 小作 주는 것이 資本 增殖을 爲하여 보다 有利하기 때문에 増産을 爲한 農業改良을 等閑視 하게 된다. 特히 地主는 生産的인 面보다는 大部分 非生産的인 高利貸 또는 農業外의 消費面에 그들의 收入을 支出된다. 또 零細農民은 財力이 不足하며 營農改善에 投資할 能力이 없으며 더욱이 小作農으로서는 増産이 小作料 納付關係로 全的으로 自己收入 增加로써 反映되지 않으며 小作期間이 不安定으로 投資額의 回收가 保障 될수도 없으니 土地改良 其他의 長期的인 施設投資는 不可能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展開된 農民運動은 小作料의 減免運動이요 小作權의 長期的인 安定을 爲한 運動으로 나타났다.

封建制的인 土地所有 關係에다 基礎를 두는 小作料의 形態로 貢納되는 封建制的 地代 및 地代形成의 問題는 農業 社會 經濟의 發展의 本質 및 特性을 決定하는 基礎的 要素이었다. 世界 第2次 大戰後의 世界 思潮의 脚光을 받아 8.15後 急激히 展開된 農民運動의 目標은 이와 같은 基礎的 要素의 除去 乃至 輕減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資本主義의 發展에 따라서 農村이 窮乏되고 沒落하고 있다는 事實을 보아서 그 當時의 農民運動의 性格을 考察하건데 이것이 資本主義의 構造를 變革시키는데도 그 強力한 目標을 두었었어야 할 것이 事實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따한 意味에 있어서 農民運動이 反資本主義的 스토간을 내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副次的인 目標이었고 農民運動의 直接의 目標은 反地主라는 點에다 두었다.

따라서 農民運動의 主體도 自作農을 爲始한 地主層 그리고 머슴을 包

숨하는全體農民이 아니고 自小作農 小作農 等の地主에 關係를 가지고 있는 農民層에 限定된다. 이와 같은 目標下에서는 미움이 農民運動의 主體가 되지 못 하였다는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그렇게 밖에 될수 없는 것이 農民을 窮乏시키고 沒落시키는 것이 資本主義 그 自體의 發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特定된 資本家타든지 資本家階級이 直接 農民에 對立하여 그들을 搾取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勿論, 農民이 沒落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意味로서든지 搾取되고 收奪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으니 그것은 만 하자면 全 機構的인 것으로서 特別 價格 關係를 通하여 行하여진다. 그러므로 農民은 그것에 對하여 다만 勞動을 強化하고 히터티를 팔다 매므로써 即 自己 搾取를 強化함으로써 對應한다는 것 뿐이고 그들의 社會意識이 相當한 水準에 到達하지 않는 限 資本主義를 變革하려는 社會運動에 結束되지는 않는다.

農民運動의 中心이 農地問題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農民運動에 對하여 政府에서도 이를 그대로 無視할 수는 없었다. 勿論 農民運動이 對地主의 運動인 限 그것이 곧 資本主義에 對하여 危險을 가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마는 土地 所有는 亦是 資本所有와 함께 私有財産制度의 中核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에 對한 攻擊은 資本所有一般에 對한 攻擊과 結合될 危險性이 濃厚하여진다고 할때는 資本의 立場으로서도 그것을 無視하여 버릴수는 없는 것이다. 周圍에서 侵蝕하여 오는 社會主義 勢力과의 結托을 防止하고 安全한 資本主義의 發展을 圖謀하기 爲하여서라도 이 같은 農地問題를 政策的으로 解決하고 農村의 經濟的 政治的 解決을 圖謀하는 것이 重要な 課題로 되었던 것이다.

廣範圍한 農民運動과 世界的인 情勢를 按撫한다는 社會的 意義는 姑捨하고라도 農地改革이 進行되는데 있어서는 그 重要的 經濟的 意義가 있는 것이다. 土地 所有者가 그 權利에 依하여 社會的 生産物 및 價値의 一部分을 占有하는 土地所有는 複雜한 長歲月에 걸치는 發展의 特殊한 結果이며 形態에 있어서 特質에 있어서 또한 歸結에 있어서 千差萬別의 相互關係의 結果이다. 이와 같은 形態는 먼 歷史的 過去의 뿌리 깊은

殘存物과도 最近의 資本主義的 時代의 最新의 成層과도 極히 緊密히 交錯되고 있다. 一國의 國民經濟에 있어서의 資本主義 發展의 速度와 程度에 依存하이 舊來의 農業諸關係의 많은 方面이 多少間에 急速히 脫落하고 모든 資本主義 諸國은 多少間에 等質의 特質을 이들의 諸關係에 附與한다. 이들의 形態의 歷史的 發生이 多樣한데나 資本主義的 經濟 自體가 그 위에 미치는 影響 및 結果는 各種 各色이다. 資本主義는 그 社會的 生産組織에 있어서 이 第三者——土地所有者=金利生活者——의 參加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一方에서는 先 資本主義的 社會 諸關係의 가장 밝은 그리고 가장 執拗한 歷史的 殘存物인 土地所有者는 同時에 '神聖한 所有權의 原理'를 通하여 資本主義的 社會의 全經濟와 血緣에 依하이 結合된다. 그리하여 資本主義的 經濟의 機構는 土地所有者에 對한 社會的 收入에 割當分을 遲滯없이 支拂한다고 하지 마는 이 土地所有者의 存續 속에 資本主義的 經濟에 對하여 矛盾되는 歷史的 諸要素가 存在하는 限 資本主義는 自己의 經濟속에 이들의 要素를 適應시킨다. 資本主義는 自己에게 矛盾되는 土地 諸關係의 歷史的 殘存物 및 形態를 解體하면서 그 經濟의 基礎를 傷하는 일이 없이 極히 可動的인 完成된 새로운 土地 諸關係를 造出한다. 그리하여 土地 諸關係의 歷史는 發展하는 資本主義의 諸形態 및 諸要求에 對한 土地 所有의 諸關係 및 諸形態의 順應의 歷史로 되었다. 이 歷史는 不動的인 封建的 土地所有의 殘滓의 崩壞, 各種 形態에 있어서의 先資本主義的 小生産者들의 收奪, 農業經濟의 資本主義化 土地의 商品에로이 轉化, 土地所有權의 農業生産으로 부터의 分離,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의 結果로서 土地所有者라는 特殊階級の 手에서가 아니라 同一의 資本家 階級の 手중에 있어서의 地代權 그自體의 資本化란 것으로 表現되었다(註1)

(註 1) 資本制 生産方法이 開始 當初에 發見하는 既成의 土地 所有形態는 이 生産 方法의 要求에 適合되는 것은 아니다. 資本制 生産方法의 要求에 適合되는 土地所有形態는 資本制 生産方法 그 自體가 農業을 資本의 支配下에 隸屬 시킴으로써 造出 되는 것이다. 그리한 然後 封建的 土地 所有도 種族所有도 마르크 共同體에 있어서의 小

農民 所有도 그 法律上의 形態가 어떠한 이 生産樣式에 適合한 經濟的 形態로 轉化되어 간다.

남은 土地 諸關係의 崩壞와 새로운 形態 및 諸 關係의 形成의 過程은 各國에 있어서의 土地 關係의 各種의 類型 如何에 따라서 進行 되는 것이 거니와 이것을 18世紀末에서 19世紀 初葉에 걸치는 歐羅巴의 境遇중 드러 觀察하여 보면 大略 다음의 세가지의 基礎的 形態를 窺아 得다. 即 (1) 國王의 國家的 土地所有, 最初 國王에게 屬하고 있던 土地의 殘存物 이것은 特權 諸階級에 分與된 土地의 殘餘分이 國家에 保有되고 있었다. (2) 主로 先資本主義的 封建的 諸關係에 源泉을 가지는 特權的 大土地 所有 그리고 (3) 小農民 土地所有이다. 特權的 土地所有라든지 農民의 土地所有는 19世紀 末葉에 이르기 까지도 (韓國에있 이서는 20世紀 後半期에 드러선 오늘날에 있어서도) 數多한 法律的 身分의 經濟的 制度와 얹히어 取得, 讓渡, 相續, 分配의 身分의 權利, 長子 相續 및 幼子相續, 世襲相續, 一子相續法 等等과 結合되어 있었다. 發展되어 가는 資本主義經濟에 對해서는 이와 같은 土地法的인 性質을 가지는 모든 制限 및 條件性은 因緣이 없는 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리 하여 土地는 單純한 하나의 自由로히 利用할 수 있는 資本主義的 生産手段으로서 從前의 共同所有 共同利用의 先資本主義的 諸條件으로 부터도 解放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韓國의 農地改革이 多分の 政治性을 띠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經濟理論으로서 抽象化 시켜 볼때 이것은 歷史發展의 一繼起를 이루고 資本主義의 要請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土地 諸問題의 變遷은 오늘날 韓國에도 農地改革을 마련 하였다. 이와 같은 理論的 根據을 두는 農地改革은 韓國農村社會의 特殊性에 照鑑하여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全體的인 資本主義의 育成을 爲하야 첫째 高率 小作料에 (註1) 依해서 寄生하는 地主層을 除去함으로써 利潤이 農業內部에 머무르게 한다. 둘째 그림으로써 農民의 生産意慾을 昂進시키고 生産量의 增加로 農產物 價格의 低落을 企圖하고 셋째 都市勞動者의 實質賃金을 低下시킴으로써 廉價한 商品을 提供한다는 口實下에 資本家의 相對的 剩餘 價値를 增大시키고 資本을 蓄積케하며 넷째 農民의 貧困이 解消됨으로써 國內

市場의 擴大 卽 有效需要가 느터나고 따라서 工業部門의 進興을 招來하며 다섯째 生産과 連結되지 않는 土地資本을 産業部門으로 轉換시킴으로써 零細한 民族資本을 生産方面에 集中 育成시켜 産業의 急速한 發展을 期하고 그럼으로써 農村過剩人口를 産業方面에서 雇傭하여 農村의 急速度의 發展을 가져 오게 한다. 여기에 있어서 農業도 近代化으로 移行하고 全體的으로 資本主義는 成長 發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註 1) 우리 나라에 있어서와 같은 過少農制下에서는 小作料는 絶對地代를 包含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小作料는 擬制的 地代인 것으로서 이것은 耕作者의 平均利潤 相當部分 또는 必要勞動 部分에서 扣除된다. 그 理由는 韓國農業을 支配하는 諸 特殊性이 農產物 價格의 一般法則을 修飾 限定하기 때문이다.

卽 韓國農業은 主로 家族勞動에 立脚하는 單純 商品生産이다. 全體的으로는 資本主義의 支配에 따르면서도 그 自身은 小農經營으로 그가 所有 또는 占有하는 小土地 위에서 그의 生活 資料를 幼稚한 原始的인 勞動用具를 가지고 自己 自身이 獨立的으로 家族과 함께 個別화된 勞動者로서 生産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勞動生産性은 낮으며 그에 依한 農產物의 主要部分은 直接의 生活資料로서 自家消費되고 殘餘分만이 商品으로서 販賣된다. 그렇지 마는 都市 工業이 資本制 商品經濟로서 發展함에 따라 農業도 차차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商業的 農業으로되어 小農經營의 基礎는 分解되어 간다. 그러한 小農에 依한 生産物 餘剩部分은 어떠한 價格으로 販賣되는가? 이 部分이 社會的 慾望을 充足시키는데 必要한 限 小農의 勞動은 社會的 勞動인 것이다. 그러나 資本制 大工業下에 高度로 組織된 賃勞動에 比하면 大端히 低度한 個別的인 勞動인 것이고 社會化된 勞動은 아니다. 卽 社會的 勞動은 아니다. 工業勞動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所謂 低次勞動이다. 따라서 여기에 投下된 小農의 勞動時間은 完全하게는 社會的 勞動으로서 實現되지 못한다. 이 境遇 農業의 主된 目的은 直接의 生計를 爲한 小農群으로서 自己의 生活資料를 生産하는데다가 租고土地는 農民이 그 勞動을 有效하게 行使하고 完全燃焼하는데 必要不可缺의 活動部面으로서 存在하기때문에 (土地는 農民의 生産手段인 同時에 生活의 手段이나) 그 生産物의 調節的 市場價格은 다만 異常한 諸條件下에서 만이 그 價値에 까지 到達할수 있는 것이다. 農民은 그 生産物을 商品으로서 生産할 수 있을 程度로 充分한 條件과 資格을 가지지도 못한채 商人으로 되고 産業者로 되었기 때문에 그 投下勞動을 社會的 勞動으로서

充分히 實現할수가 없다. 換言하면 最劣等の 何等の 地代도 招來하지 않는 土地에 있어서의 生産價格이 恒常 調節的 市場價格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 價格은 平均利潤을 確保한 수가 없으며 勞賃(自己 및 家族의 生活 資料)을 支辨 하려는 土地 耕作은 續行되는 것이다 小農은 資本家라고도 할수 없는 同時에 또 資本制的으로 社會化된 勞動者도 아니다 따라서 그 勞動 生産力은 極히 低位하기 때문에 平均利潤을 價格의 構成 部分으로서 社會的으로 要求할 수 없게 된다. 約言하면 農產物 價格은 價値 或은 生産價格의 水準보다 훨씬 下位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價値 或은 勞動의 社會에 對한 無償給付에서 오는 것이며 이때의 農產物 價格에는 絶對地代를 包含하지 않는다. 그리 하여 小作料는 利潤 相當部分 或은 必要勞動 部分에서 控除된다.

第 2 章 農地改革의 經緯와 內容

以上에서 든 바와 같은 社會的 經濟的 意義를 가지는 歷史的 課題인 韓國의 農地改革은 어떠한 經緯를 밟아 누구의 손에 依해서 어떠한 內容으로 歸結 지워졌는가? 다음 章에서 論及될 것이지만 이와 같은 內容을 가진 農地改革이 農村經理에 如何히 反映되었으며 各 階級間에 波及은 어떻게 미쳤으며 特히 머슴은 어떻게 되었는가

順序를 조차서 그 經緯와 政策主體 그리고 그內容을 淸楚 보라

1945年10月 5日 美軍政은 軍政法令 第9號로 小作料 3·1制를 公布施行함으로써 當時의 社會的 經濟的인 情勢에 對處하였다. 이와 같은 意圖는 그 後 發展되어 1946年 2月頃부터 美國務省을 中心으로 하여 南韓 農地改革에 對한 基本政策의 樹立이 推進되었고 結局에는 一方的으로 歸屬農地 分配事業을 斷行하여 다음에 있을 農地改革의 先驅的 役割을 하였다.

即 1947年 初에 韓國의 立法議院과 美軍政 關係者間에 農地改革에 關한 屢次的豫備會談이 進行되었으며 이와 같은 美軍政의 推進下에 立法議院에서는 同年 5月에 南朝鮮 土地改革 法案起草에 着手하였다. 그러나 法案 起草가 遲遲 不振 하므로 同 9月에 이르러 美軍은 自身이 成案

한바를 立法議院에 提示하여 早速한 成案을 遵行하게 되었다. 美軍政案을 中心으로 熟議를 거듭한 結果 同年 即 1947年 年末에 全文 7章 28條로 된 草案을 立法議院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同案은 一切의 小作地, 3町步 超過 自耕地를 買收하여 小作農 零細 自作農에게 分配하고 平年作의 30割 15年 年賦 償還과 補償을 規定하고 있으며 從前의 地主에게도 營農을 願한다면 3町步 以內의 農土를 買上에서 除外하고 農地改革以後에는 一切의 農地賣買 贈與, 抵當 貸貸契約을 禁한다는 것을 骨子로 하는 것이다.

同 法案이 立議 本會議에 上程된 後 그 審議가 遲延을 거듭하여 最終 結末을 보지 못하고 1948年 5.10總選舉를 앞두고 立法議院 自體가 解體되어 法案은 消滅 되었다. 當時 農地改革은 政府樹立後에 實施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立法議院에서 法案 審議를 躊躇 乃至 回避하는 傾向이 없지 않았으므로 美軍政은 1948年3月22日에 軍政法令 第173號로 中央土地行政處의 設置令을 公布하여 新韓公司 所有 歸屬土地의 分配事業에 着手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歸屬農地 分配事業을 除外 하고는 農地改革 事業은 新生 大韓民國의 하나의 課題로서 남겨 주었다.

新 韓國 初代 曹 農林長官이 美軍政으로 부터 政權을 移讓받은 1週日 後 大韓民國 農林長官으로서의 첫 聲明에 依하면 “大韓民國 憲法은 土地는 農民에게 分配함을 原則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우리 나라는 農地를 農地없는 農民과 農地 적은 農民에게 適切히 分配하여 不合理한 土地 所有制度를 打破하고 農家經濟의 自立 農民 生活의 向上 農村文化의 發達 및 農業生産力을 增進하여 國民經濟의 安定을 期할 農地改革法과 塗炭에 빠진 民生問題를 解決하고 經濟的 恐慌과 混亂이 없는 健全한 民族 自立經濟를 建設하며 國民의 需要供給을 調節하는 同時에 特別히 農民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기 爲하이는 利己的인 것을 떠나 隣保協助의 精神에 立脚한 強力하고 非營利的인 協同 經濟體制가 必要하게 되므로 農民에게 分散的 指導와 過重한 負擔을 주고 있는 諸農民團體를 統合하는 協同組合法이 必要합니다.” 라고 하는 具體的인 立

案이라 農林部에서는 1949年1월에 農地改革 法案을 起草하여 國務議會에 上程하였다.

農林部案은 歸屬農地와 아울러 小作地, 委託經營地, 3町步를 超過하는 自耕地를 買上하여 小作農과 零細 自作農에게 分配함을 原則으로 하였다. 이 點은 過政時의 立法議院의 草案과 同一하다 하지만 地價償還을 平年作의 12割 6年 年賦償還 地價 補償을 平年作의 15割 3年 据置 10年 年賦補償으로 하였다는 點에서 立法 議院案과는 差異가 있는 것이다. 即 農林部案은 農民을 爲하여 보다 有利하게 規定되는 反面에 地主에게는 地價 補償額이 半減되고 歸農을 希望하여도 3町步까지의 自耕地를 認定치 않는 點에서 極히 不利한 것이었다.

國務會議에서는 農林部案을 企劃處로 하여금 再檢討케 하여 그 修正案을 同年(1949年) 2月4日 國務會議에서 通過시켜 國會에 廻附하였다, 修正案은 歸農 希望 地主에게 3町步 以內 自耕을 許容하였으며 地價 補償과 償還을 各各 平年作의 20割 10年 年賦制로 規定하였다는 點에서 農林部案과의 差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一便 國會에서도 農地改革 事業의 重要性에 鑑하여 農林部案과 對照 檢討 하면서 獨立的으로 法案을 起草하였으니 同案이 同年 2月 10日에 國會 本會議에 上程되어 이를 中心으로 國會審議가 進行 되었다. 國會 草案은 地價를 平年作의 30割로 決定하고 補償과 償還을 10年 年賦制로 하였으며 地主의 歸農을 許容치 않는 反面에 公務 其他의 不得已한 事由로 一時 離農하는 者에게 3町步 以內의 農土를 買上에서 除外 하도록 하였다.

지금 까지 略述한 바로써 알수 있는 바와 같이 立法 議院案 農林部案 國會案 또는 政府案을 綜合 檢討하여 볼때에 買上 對象農地는 歸農希望 地主에게 自耕地 3町步를 認定하는 問題만이 달들 뿐이고 大體로 同一한 內容으로 되어 있는데 比하여 地價와 그 補償 및 償還에 있어서는 意見이 區區하였던 것이다. 地價를 어느 水準에서 決定하느냐 또 償還과 補償期間을 몇年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農地改革法 制定에 있어 問

題의 焦點으로 되었다. 그럴수 밖에 없다 農地改革은 擔當者 가운데 農民의 代表는 없다 舉皆가 地主層이고 資本家層이다. 地價라는 것이 豫想되는 地代의 一時拂인 以上 이것을 最低限으로 하고 어떻게든지 恣意的인 方向으로 決定되어 질수도 있는 것이지만 問題는 그當時의 社會的 情勢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카바하며 冒免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國會 本會議에서는 地價와 補償 및 償還方法을 中心으로 하여 各種 修正案이 簇出하였다. 이것을 綜合 審議하여 同年 4月28日에 全文 6章29條로 된 農地改革法을 採擇 通過시켰는데 그 重要的 骨子는 大略 다음과 같다.

(1) 對象地

논과 밭 雜種地 其他 地目의 如何를 莫論하고 耕作이 可能的 一切의 土地 및 農地에 따르는 附屬物

가. 自耕하지 않고 남에게 小作을 주는 農地는 모두 國家에서 買上하여 現在 小作하는 緣故者에게 分配한다 그러므로 本法 實施後에는 如何한 形態라도 小作制度란 것은 一掃된다.

나. 分配될 農地에는 當然히 國有로 되는 農地, 例를 들면 國有地 歸屬農地, 反民法 判決에 依하여 沒收된 農地 舊王宮 所有地 個人農地라도 農家아닌 不在地主 農地, 在村地主라도 自耕치 않는 農地, 自耕하더라도 1戶當 3町步 以上 耕作 할때는 3町步를 超過한 農地, 學校, 宗教團體, 厚生 機關等的 現在 自耕하고 있는 以外의 農地는 모두 政府에서 買上하여 一段國有로 하있다가 다시 分配한다.

(2) 除外 되는 農地

小作 주지 않고 自營하는 果樹園 種苗園 桑田 其他 數年間 成長하여야 하는 宿根性植物을 培植하는 農地 및 山林

(3) 地主補償과 農民이 地價를 償還하는 方法

農地를 政府가 買收하는 價格은 그 農地 主產物의 平均 15割이다. 卽 1年半의 收穫高로써 農地의 價格으로 하되 各 市邑面의 中級 農

地를選擇하여 그 中級地의 平年作(註1) 生産高를 現法定 價格으로 換算하여 그 農地에 表示된 貨貸價格에 對照하여 倍率을 定하여 놓고 이 倍率을 隣近農地의 貨貸借 價格에 乘한 것이 곧 農地價格이 된다.

이것을 現物로 表示한 證券으로서 于先 支拂하고 現金 交付로 因한 인플레이 壓力을 防止하는 한편 償還年限 5年間의 物價變動에 地主의 不當 損失이 없게 한다.

(註 1) 平年作이라 함은 1937-33에 걸치는 韓國으로서의 豐年의 作況이나

(4) 分配받은 農民 大部分이 零細한 農民이며 短期 自立의 길을 열게 하기 爲하여 되도록 低廉한 값으로 하여서 負擔의 輕減을 꾀하여야 할 것인데 (同情의 口調로) 國家財政이 許諾하지 아니하므로 12割5分 (國會에서 後에 15割로 修正) 每年 2割5分式 (國會에서 後에 3割式으로 修正) 5年間 現物로써 政府에 納入 한다.

(5). 地主 救濟策

地主에게는 그 能力에 비추어 鑛山開發, 工業生産 水産開發 開墾, 干拓事業 果樹園 種苗 其他의 生産補導에 關한 諸措置를 講究할 것 인바 于先 歸屬財産 및 企業體를 拂下하여 株式會社 等으로 轉換發展케 한다.

여기에 있어서 政府에서는 國會에서 廻送된 農地改革法에 對하여 15割 補償 12割 5分 償還의 差額 2割5分の 國庫負擔도 財政 形便上 困難하다는 理由로 이를 拒否 返送하게 되어 物議가 紛紛하였으나 同年 (1948年) 5月15日에 憲法 40條에 依하여 法으로 確定된 農地改革法을 國會에서 政府로 再廻送하였으니 同年(1949年) 6月21日에 法律第31號로 公布를 보게 되었다.

政府에서는 이를 實施하기 爲하여 全國的인 農業實態 調査를 進行하였으나 豫算措置가 圓滑하게 되지 못하였다는 口實으로 1年이란 長期間을 處送하였다. 이것은 補償과 償還額을 올리기 爲한 施行의 遷延이었다. 그리하여 1949年10月25日에 産業勞動 委員會의 改正案이 國會本會議에

上程되었는데 그 改正案은 補償과 償還額을 24割로 引上한다는 것을 骨子로 하였으나 結局은 當初의 政府의 意圖에 따라 償還額을 平年作의 15割로 引上한다는 改正法이 國會에서 採擇되어 1950年 3月10日에 法律 第108號로 公布되었다.

그後 同年 3月25日에 農地改革法 施行令이 同 4月28日에 施行規則이 各各 公布됨으로써 비로소 農地改革에 必要한 立法措置가 完了되어 具體的 實施 段階에 突入하였다. 1949年 6月21日現在 머슴을 비롯한 農村 勞働者는 卽 농고, 그리고 또 極히 曖昧한 農業 實態 調査(註1) 結果의 全國集計가 完了되어 農地 小票에 依한 農地調査와 農家別 農地 一覽表의 縱覽이 終了되고 分配 豫定 通知書가 發給되는 途中에 不意의 6.25 事變이 勃發하여 戰火를 冒免한 慶南北 一帶를 除外하고는 不得已 農地 改革의 實施를 中斷하게 되었던 것이다. 慶南北 一帶 地域에 있어서는 農改事業이 續行되어 同年 夏穀부터 一部地價 償還이 開始되었다. 그리 하여 戰亂으로 말미암는 軍糧米 確保와 其他의 官需糧穀의 充當을 期하기 爲하더라도 全國的인 事業推進에 拍車를 加하지 않을수 없이 全力을 기울여 이를 斷行하여 1950年 秋穀부터 分配 農地의 地價償還이 全國的으로 收納되기 始作하였다. 附記할 것은 過政下에 軍政法令 第173號로 處分된 歸屬農地로 一切 農地改革法의 適用을 받아 15割 5年 年賦 償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註 1) 1949年 6月21日 現在의 自作農地는 1,240,314町步이고 그 構成에 있어서 畓이 606,353町步 田이 543,951町步 이며 小作地는 833,263町步로 畓 540,196町步 田 290,067町步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1948年 11月23日 農林部가 開催한 各道農業課長 會議의 書類로 持參되었던 畓地面積에 比하면 總面積에 있어서 前者(1948年 11月23日)는 後者(1949年 6月21日 現在)에 比하여 121,969町步가 많았으며 小作地에 있어서는 後者는 494,544町步 縮少된 反面에 自作地는 後者가 前者에 比하여 372,575町步의 增加를 보이었다.

兩者 모두가 實測에 依한 것은 아니므로 前者는 從前의 關係簿表에 依하여 各其의 面 郡市, 道의 行政當局者들의 集計업과 同時에 使用 目的에 있어서도 合同 報告 書類에 局限된 것이었다는 事

實, 後者は 農地改革 實施의 基礎資料로 하기 爲한 調査의 結果다. 點에서 前後者의 正確度를 어디다 보더도 구제 될것인지는 判定에 困難한 曖昧한 것이나 이와 같은 差異는 豫想 했던바요 決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實際로 있었던 것이다. 後者에 있어서 總面積이 減少된 것은 農地改革 對象에서 除外 되기 爲한 官僚과 結托된 地主層의 數字作亂이고 또 小作地가 減少되고 自作地가 增加된것 또한 地主層의 能熟한 術策으로 分配對象에서 除外되기 爲하야 小作地를 自作地로 假裝하면서 小作人에게는 일마 만큼의 補償에 滿足시켰던 事實과 農地改革을 믿지 못하거나 地主에게 爬워서 (舍替의 役割이 컸었다) 小作人의 地主로 부터의 土地買入 등으로 나타난 事實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事實은 그 當時 到處에서 橫行한 것으로 여기서 例舉할 必要조차도 없는 것이다.

第 3 章 農地改革과 農村變貌

封建的인 隸農에서 脫脚하기 爲한 農民運動은 國家資本의 發展의 方向으로 이끄러 이것이 합쳐서 土地 所有에 對한 抗爭으로 나타나 國家 獨占資本 發展에 適合시킨것이 農地改革의 基本的인 定理라고 할때 이것이 尙今 廣範히 存在하는 地主層의 勢力을 남김 없이 떨치는 못하였다. 農地改革法의 經緯를 살펴 보아도 알겠지만 農地改革이란 歷史的인 命題 앞에서 어떻게 하였으면 獨占資本과 結托되어 있는 그들(地主)에게 보다 적은 犧牲으로써 이에 適合시킬 것인가에 要鍵이 있었다. 그리하여 日帝下에 施行하였다가 이미 失敗의 苦杯를 마신 自作農 創定計劃에 다름 없는 私有制度의 原則下에 豫想된 地代인 地價를 支拂함으로써(註1) 어쨌든 封建的인 土地 所有 諸關係를 農民의 苛酷한 負擔으로써 短縮시켜 法律上으로는 解消되었다.

生産力の 發展을 阻害하는 것이 封建的인 土地所有 諸關係 뿐만이 아니라 自由로운 小農民의 土地 私有가 封建制度를 破壞하고 資本主義를 造出하는 過渡的인 存在로서는 必要 不可缺의 것이므로 그것이 土地 私有인 限 亦是 生産力の 自由로운 發展을 阻害하다.

(註 1) 土地購買을 爲한 貨幣資本의 支出은 何等 農業資本의 投下를 意味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小農民들이 그들의 生産部面 그 自體

에 利用할수 있는 資本을 그 만치 減少시키는 것 그리고 그물의 生産機關의 範圍, 따라서 또한 再生産의 經濟的 基礎을 그만치 縮少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理論的 根據을 이터한데다 두는 急進的인 資本主義는 그 自體의 가장 自由로운 發展을 爲해서 往往 土地의 私有를 廢하고 土地 國有를 主張한다. 그렇지 마는 韓國의 資本家 階級은 그것을 實行할 能力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것은 첫째 土地私有의 廢止가 私有一般의 廢止를 誘發할 것을 두려워 하였고 大部分의 資本家 自身이 土地를 領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結果는 農地改革法의 經緯와 內容에 그리고 農地改革 以後의 그 實蹟과 農村經理가 反證하고 있으며 現實은 그들立案者들을 嘲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마는 大土地 所有가 解體되고 農民의 小土地 所有가 增加된 것은 農業의 資本主義化에로의 第一步을 내 디딘 것은 틀림 없다. 이와 같은 土地私有에 基礎을 두는 資本主義化는 農業의 發展을 阻害하고 制限한다는 것은 이미 言及된바다. 土地 國有가 아니고 土地私有를 存續시킨다고 하더라도 封建的 土地私有를 徹底的으로 農民의 土地 私有로 分割하여 實質上의 土地國有(全人民의 土地所有)를 實現하였다면 韓國과 같은 條件(註1)에 있어서는 이것이 도라혀 革新的인 進化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었다. (註2)

(註 1) 이미 廣範히 土地私有가 行하여져 있었고 私有欲에 눈이 이터운 韓國과 같은 社會的 條件

(註 2) 近藤康雄 編 農業經濟研究 入門

東京大學 出版會 1956年 29面

資本制化를 爲한 이와 같은 “두가지의 길”은 가장 自由롭고 가장 急速한 資本主義의 發展을 가져올수 있으며 이것을 또한 가장短期間으로 克服하고 다음 世代로 移行 할수 있는 길인 것이다.

韓國의 農地改革이 農民의 손에 依해서 遂行된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터 地主와 結托된 官僚들의 손에 依해서 行하여 졌다는 것이 그 第一의 特徵으로 되는 以上 “두가지의 길”은 當初부터 實現될수 없는 것이요

農地改革後の 現在도 貧困은 依然 貫徹하이 “프랑스의 農民의 土地所有 制度의 戲謔”라는 地位는 조곰도 變化되지 않고 오히려 深化되고 있다. 이러한 點은 어떻게 理解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農地改革 自體를 國家獨占資本의 農業制握의 過程으로서 說明되지 않으면 안된다. 韓國의 資本主義는 急速한 國家資本의 形成이 必要하였고, 超國家的 反動의 뿌리를 斷切 함과 同時에 他方으로는 反共의 防壁을 構築하는 即 反封建과 反共의 二重의 任務를 附與하는데 그 第二의 特徵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國家獨占資本主義는(註1) 殘存하는 封建的 因子를 利用하이 農民層을 全般的으로 收容하는데 便利한 方向으로 農村社會構造를 再編成하였다.

(註 1) 獨占資本의 利害代表者로서의 國家에 依한 強度의 經濟的 統制 國家資本과 私的 獨占資本과의 結合 및 融合 特히 資本主義的 獨占企業에 있어서의 兩者의 合成 等等이 國家獨占資本主義의 概念이다. 韓國에 있어서는 大資本과 結托된 國家官僚에 依하여 活動되는 國家가 지금 까지의 資本主義 經濟에 있어서 指導的 役割을 하여 왔다. 그렇지 마는 이것은 本來의 國家獨占資本主義와는 差異點을 가지고 있다. 現下의 大資本은 尙今 獨占資本이라고는 할수 없고 따라서 獨自의인 利害에 關係 되는 것이라고도 할수 없다. 따라서 또한 國家는 資本家 階級 全體의 執行機關으로서 機能을 하고 資本家로서의 國家 및 經濟的 統利者로서의 國家의 諸活動도 資本主義 一般의 發達을 爲한 諸條件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即 農地改革에 依한 地主制의 解體란 것은 支配階級으로서 廣範히 散存하는 寄生地主制를 適切한 價格의 地價補償 및 自耕의 認定等 妥協的方法으로 解消함으로써 國家權力과 癒着된 獨占資本이 農民層을 直接으로 制握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 結果 이것은 農業의 發展은 姑捨하고 그것을 阻害하여 貧困으로 이끌었으며 이것은 오늘 날의 現實이 直面하는 農村經理이다. 이것을 實證하기 爲하여 먼저 農地改革의 實績을 計數적으로 따져 보자 法規定에 따라 一般農地 畝226.4千町步 田105.3千町步 計332千町步(法 公布日現在의 買上 豫定面積의 55%)가 政府에 買上 當하였다 農地를 買上 當한 地主는 169千名이다 一便 分配된 農地

는 歸屬農地 當 189千町步 田56千町步 計245千町步를 合計하여 577千町步(法公布日 現在의 分配豫定面積의 67%)로 그 中 當이 416千町步 田이 161千町步이다 이것은 1950年의 總耕作 面積의 29%에 該當한다. 農土를 分配받은 農家는 一般 農地에 있어 918千戶 歸屬農地에 있어 727千戶이다 地價償還은 一般 農地가 正租11,087千石 歸屬農地가 8,368千石이다 다시 말 하면 169千名의 地主가 11百萬石의 正租를 補償으로 받고 331千町步의 農土를 賣却하고 總計 1,645千戶의 農家가 約 20百萬石의 正租를 地價로 내고 577千町步의 農土를 分配 받아 平均 3.5反步 內外의 土地 私有者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地價償還이 大體로 完了되어야 할 1955年 5月末 現在로 要償還額의 73.3%에 該當하는 16,086千石이 收納되어 總額의 26.7%에 達하는 5,603千石이 未納으로 되었다. 그 原因을 살피면 農地改革後의 農村變遷을 本質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것이거늘 첫째로 平年作의 3割에 該當하는 現物을 5年間 繼續하이 納付한다는 것이 農民에게는 過重한 負擔이란 點이다.

韓國 農業으로서는 稀有의 豐年作인 平年作의 3割을 每年 納付 하야 하므로 作況이 不良한 年度에는 實收穫高 全部로서도 이에 充當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인바 農地改革 實施 直後인 1951 同 52년에는 米穀收穫高가 各11百萬石, 9百萬石에 不過하이 償還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둘째로 臨時 土地收得稅法이 1951년부터 實施되어 分配農地의 年收穫高의 5%以上 24%까지의 現物이 徵收되었으므로 地價 償還額과 合한다면 收穫高의 40~50%를 超過하는 農產物을 政府에 納付하야야 하였다 더욱이 土地收得稅가 優先的으로 徵收되었으므로 地價의 償還은 不振하였던 것이다. 셋째로 平年作이 每年 收穫되었다고 하더라도 平均 6人 家族을 가지는 그를 農家가 3.5反步의 耕作으로써는 그들의 食生活도 解決 못하는데다가 3割의 償還料 土地收得稅 및 諸般 公課가(그前에는 地主가 負擔하던 것을 그 “神聖한 所得權”을 가지게 되므로서 耕作者가 負擔하게 되는) 합쳐서 5割을 超過하는 農產物이 控除될 때 農民들의 生存을 威脅하고 雪上 加霜之格은 6.25 事變으로 農畜, 農機具, 農

糧의 被害가 極甚하여 더욱 困乏하여 갔던 것이다 다섯째로 인플레이 累進下에 있어서 農民들의 一方的인 負擔을 強要한 現物稅, 低農產物 價格政策 雜賦金의 不絕 農業金融의 梗塞 等等 이었다.

이것을 打開하고 臨時的인 農民의(註1) 冒免方法은 오직 高利貸의 門前 밖에는 없었다. 이 結果 나타나는 農民들의 進路는 이미 우리가 探索한 바이나 分配받은 農地를 轉賣하고 零落되어 가는 傾向을 當局은 默認까지도 하고 있다. 이것은 國家獨占 資本의 農村 制握으로 나타나는 現象 以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註 1) 古來로 내려오는 社會關係가 만드려준 農民의 氣質 卽 因襲적이고 無膽하고 無氣力한 忍耐性있고 執着性이 強한 韓國 農民의 性格(崔虎鎭 教授 近代 朝鮮 經濟史 研究 第1卷 第1-2章)을 論者는 農民의 이란 形容詞로서 부처 보았다.

할된 地主에 對한 地價補償을 드러다 보면 이關係는 더욱 明瞭히 나타난다. 地主에 對한 地價補償은 法定支拂 完了期日인 1955年 5月末 現在로 要支拂 石數 10,759千石의 53%에 該當하는5,652千石이 支拂되고 47%에 該當하는 5,107千石이 未拂로 되어 있다. 여폭 金額으로 換算하면 要支拂額 15,327百萬圓中 28%인 4,255百萬圓이 支拂되고 72%인 11,071百萬圓이 未拂인 것이다. (第7表 參照)

이와 같은 補償遲延이 勿論 地價 償還의 不振에도 있는 것이지만 이는 國家資本으로서 役割되어 結局은 地主도 國家資本形成의 犠牲物로서 強要되고 마랐다. 이러한 事情은 國家獨占資本이 農村을 制握한 것을 雄辨으로 表示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있어서 地主의 沒落이란 것을 論外로 하더라도 農村의 過度한 負擔은 一般的인 農村의 貧困化를 促進시키는 國家權力에 매달린 農民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그들의 零落을 宿命的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第七表 農地 地價 補償金 支拂 實績表 (195, 5, 31 現在)

年度別	要 支 拂 額		既 支 拂 額		未 支 拂 額		支拂比率	
	石數	金額	石數	金額	石數	金額	石數	金額
	(石)		(石)					
1950	2, 151, 936.80	318, 805, 348.24	2, 039, 389.62	332, 115, 178.52	112, 547.18	16, 690, 163.72	95	95
1951	2, 151, 936.80	1, 265, 934, 419.40	2, 111, 661.00	1, 242, 289, 588.70	40, 276.80	23, 694, 832.70	98	98
1952	2, 151, 936.80	3, 885, 537, 086.00	1, 451, 005.94	2, 620, 123, 009.00	700, 933.86	1, 265, 414, 077.00	67	67
1953	2, 151, 936.80	3, 885, 537, 086.00	59, 442.70	91, 079, 318.00	2, 101, 494.10	3, 794, 457, 733.00	10.2	0.2
1954	2, 151, 936.80	5, 971, 624, 620.00	—	—	2, 151, 936.80	5, 971, 624, 620.00	—	—
計	10, 759, 684.00	15, 327, 488, 559.64	5, 652, 493.26	4, 255, 637, 124.22	5, 107, 185.74	11, 071, 881, 435.42	53%	23%

資料：農林部 農地管理局

産業銀行月報 1955年 9月號 No. 8, 13面에서 轉記

第 4 章 머슴의 生活

農地 없는 農民, 農地 적은 農民에게 農地를 分配한다는 農地改革은 當時 27萬의 머슴을 分配對象에서 除外한 채로 進行되었다. 從來의 農民 運動에서 그 性質上 大概 머슴이 그 主體에서 벗어 난 것과 마찬가지로 韓國의 農地改革에서도 그 性質上 그 對象에서 벗어 났다. 韓國의 農地改革이 內包하는 內在的인 論理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 雇主와 머슴과의 사이에는 民法上의 關係外에 道德上의 關係까지도 있어 이와 같은 社會 經濟的인 條件이 있다 할지라도 反旗를 들고 나오기에는 너무나 愚鈍하였고 保守的이었다. 典籍없는 奴隸라는 從來의 韓國의 社會的 諸關係는 머슴의 人間精神을 極度로 隘狹한 視野에 拘禁하고 人間을 迷信의 道具로 傳統的 習慣의 奴隸로 化하고 또 그 위에 人間의 모든 偉大性과 歷史的 發展의 創造性을 掠奪하였다. 資本制化를 制約 當하는 보다 더 零細化의 結果를 마련한 農地改革은 經營의 近代化를 招來하지 못하고 近代化되지 못하는 經營속에서는 奴隸制의 破片인 머슴은 決코 그 속에서 脫殼되지 못한다.

農地改革의 結果를 惡化시킨 原因의 하나로서 前般에 든바 1951-52 兩년에 걸치는 大凶作이라고 하지만 平年作의 3割의 償還이 平年作을 實現하기 어려운 農業生産 實績에 비추어 過重한 負擔이란 것을 먼저指摘하지 않을 수 없고 兩년에 걸치는 大凶作은 克服力이 弱한 貧困한 零細農이기 때문에 더욱 深化되어 여기에 農民의 大量的인 貧困이 造出되었다. 이 期間에 많은 部分의 農土가 그들 農民의 食糧과 負債과 交換되고 한편에서는 土地兼併이 廣範히 進行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農民은 唯一의 財産인 팔수 있는 勞動力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들을 賃勞働者로서 收用할 수 없는 韓國 産業의 現實下에 이들은 必然的으로 머슴의 數에 增加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나 6.25 共產侵略의 防禦 構築에 提供하여야 할 人的資源으로서 이는 一時的으로 가바

되었다. 動亂으로 인한 工場施設의 破壞로 失職 當하는 勞働者의 農村에의 還流도 亦是 動亂人의 資源으로서 카바 되었다. 動亂에 人的 資源을 全般的으로 負擔한 農村은 그 過剩人口가 削減되었지 마는 過剩人口가 貧困의 原因이 아니라는 것을 提示하는 實證은 여기에 示現되어 貧困은 解決되지 못하고 生産量의 減少라는 現象을 招來하게 되었다..

그 實 靑壯年層이 大部分 應召하는데 있어서 머슴은 그 部落內에서도 第一 먼저 選拔 當하는 榮光?을 입었다. 靑壯年層의 머슴이 戰場에 나간 然後에는 老年層 少年層의 머슴이 이기에 代充 된다 老少年層의 머슴으로서의 代充이란 것은 直接的으로는 凶作과 6.25 動亂이 刺戟하였지만 그間接的인 刺戟은 經營에 있어서의 赤字를 防止하기 爲한 勞働의 集約化이다. 勿論 能率은 靑壯年의 머슴 보다는 低下되는데 그것을 變적하고 裁減의 決定에서 雇傭主는 最低限度의 衣食住 程度인 獨擅的인 地位를 가지고 이들로 부터 剩餘勞働을 마음껏 吸收해 버린다.

靑壯年層의 減少는 그 數字 以上으로 老少年層의 增加를 가져 왔다. 農地改革 結果 經營規模의 一層의 零細化를 招來하고 地主가 沒落되어 머슴의 需用이 減少되었다고 一般的으로 推定하나 平均經營規模가 零細化(改革前 1.2町步 改革後 0.82町步)된것은 巨大 地主 土地의 小作人에 對한 細分化에서 오는, 即 小作地의 所有權의 移動에서 오는 結果로서 이것은 머슴에게는 아무런 相關도 없는 것이며 地主의 沒落이란 것이 自耕하지 않는 小作을 두고 있던 地主層의 沒落인. 以上 머슴의 需用에 減少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農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地主層의 反動으로 小作人으로부터 土地를 不法으로 橫奪하이(註1) 親族에게 土地를 細分하는 등 自作을 假裝한 事例가 許多한 以上 오히려 머슴의 需用에는 增加를 齎來하였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것 같다(註2)

(註 1) 農地改革에 對備하여 法公布日 現在 農家實態 調査結果(前年11月の 調査보다 總面積에 있어서나 小作地에 있어서 減少된 것에 注意하여야 한다)에 依하면 一般 小作地가 畝 361 千町步 田235千町步로

計 597千町步이며 自耕地로서 3町步以上 超過 農地가 計 1千町步
 田 2千町步로 計 3千町步 이므로 買上된 農地面積은 計 363千町步
 237千町步 總計 601千町步에 達한것으로 豫想되었다. 그러나 實買
 上 面積은 332千町步에 不過하다. 即 豫定面積의 55% 만이 實際買
 上 된 것이다. 強調할것은 法에 依하여 法公布日 以後에는 一切의
 自耕하지 않는 農土의 買賣와 贈與 小作權 移動을 禁한 것이다(產銀
 月報No. 8 1955年 9月 13-14面 參照)

(註 2) 本 論文 第3編 第1章 第1節 參照

이와 같은 事情下에서 머슴의 生活面에 어떠한 變化를 招來하였는가
 ? 靑壯年層의 應召도 만미안는 靑壯年層 머슴의 供給不足으로 이군의
 새경은 急騰되었다 그러나 老少年層의 새경은 거의 向上이 없었다. 靑
 壯年層이 받는 새경은 그 收入이 事實上 3反步 内外의 耕地를 가지는
 貧農의 收入 보다는 많다. 이층 머슴에 對해서는 各種의 公課金도 없
 을 뿐더러 種子代도 肥料代도 또 그것을 사기 爲한 高利貸金도 必要하
 지 않는다. 그리하여 出血的인 것이지만 貯蓄을 해 나오는 머슴層에
 있어서는 家族勞動으로써 耕作하되 自己의 家族을 扶養할 수 있는 程度
 의 小土地를 確保하게 되어 머슴으로 부더 告別하는 境遇도 없지는 않
 다 이러한 것은 雇主가 머슴에게 주는 敎訓의 한로막으로서 往往 引用
 되는 바이니 이것은 本時에 어느 程度의 生活 地盤을 가지고 있던 極少
 數의 境遇이고 다음의 統計(第13表)에서도 볼 것이지만은 522名의 머슴
 가운데 5年 以上の 被傭年數를 가지는 머슴이 50%에 達하면서 現在에
 있어서도 向上의 길을 밟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것이 決코 遇然한
 것이 아니고 半封建的인 搾取關係의 一角을 表現한다.

특히 休戰에 따르는 除隊軍人의 農村復歸 勞務動員者의 農村復歸(第
 8表)로 漸漸 農業人口를 增加시켜 앞으로는 그들의 새경이 相對的으로
 低下 될 것이며 零落의 길은 더욱 擴大될 것이 틀림 없다. 이에 對한 實
 證的 研究은 다음 編에서 試圖될 것이지만 農民의 生活을 向上시키고
 農業을 近代化시킬 것을 期待한 農地改革으로서도 農村經理에는 조금도
 改善이 없었으며 더욱 惡化의 傾向을 보이 주었고 農村의 貧困과 相對
 的 過剩人口의 累積은 머슴을 近代의인 農業勞動者로 轉換커녕 從來의

道德的 身分的 隸屬關係는 조곰도 解消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規模에 있어 目的에 있어 歴史的인 課題이었던 農地改革은 土地없는 農民인 머슴에게는 조곰도 惠澤을 주지 못하였으며 農村의 貧困이 累積되고 農村人口가 深化되어 가는 限 身分的 關係가 解消되는 近代的인 勞動者에로의 轉換조차도 待期하기 어려운 處地에 있는 것이다.

第8表 市道別勞務動員解除者一覽 (1955, 7, 31現在)

서울	2,096
京畿	6,819
忠北	4,687
忠南	6,352
全北	6,429
全南	7,800
慶北	8,731
慶南	9,117
江原	2,662
總計	54,693

資料：保健社會部 勞動局

產業銀行 月報 No. 8 1955年 9月號 57面

(次號에 繼續)

STUDY ON
MEOSEOM
(farm hand in Korea)
(SUMMARIZED)
(1)

Kim Byeong-Tai

CONTENTS

INTRODUCTION

Part One The Historical Consideration on the Meoseum.

Chapter 1. The Conception on the Meoseum.

Chapter 2. Social Origin and Changing Pattern of the Meoseum.

Section 1. Origin of the Meoseum.

Section 2. The Emancipation of Slaves and the Meoseum.

Section 3. The Invading Japanese Capitalistic System and the Meoseum.

Section 4.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Meoseum.

Part Two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and the Meoseum.

Chapter 1. The Social and Economical Significance of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Chapter 2. The Progress and Contents of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Chapter 3.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and the Changing Pattern of Rural Society.

Chapter 4. The Life of the Meoseum.

INTRODUCTION

Korean agriculture has been managed mainly by the family unit and class divisions have remained undeveloped. Surplus population and smallscale agricultural units have been by the products of the evolution of Korean capitalism. A form of potential unemployment of the agricultural population, has appeared capitalism in Korea has kept it's secret of capital accumulation in appropriating from farmers, but they have been hardly transformed from farmer into wage-labourer, although they are fallen by appropriating. The degree of industrial development defines the scale and content of the wage-working class. Korean capitalism, different from advanced

countries such the United Kingdom, could not sufficiently absorb the surplus agricultural manpower, be transferred to the industrial sector. Such a transformation is extremely difficult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ir land and other means of production are lost.

Thus, a segment of the agricultural population remaining on the land has been forced as a result of semi-serfdom relation into becoming Meoseum. This involves a pre-capitalistic employment relation, and therefore by implication a host of problems connected with the process of and collapse of the feudal land owner system and its personal dependent relations.

The study on the Meoseum must thus be approached from the historical view point of the backwardness of Korean agricultural economy and of the problems of population. Such a study must be accompanied by a general theoretical analysis of agricultural economy. The study itself will be concerned with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factors which make it impossible to secede from the feudalistic situation; secondly, tendencies of peasants toward poverty and finally,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regards these situations.

It is our main purpose to review the problems of population, relations of production, the historical and structural peculiarity of Korean rural society through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of the Meoseum, and, furthermore, to deal with the substance of the socio-historical position of present Korean agricultural society. Consequently we find in these studies the problems of theory and practice, e.g., abstracted theoretical forms of the Meoseum on the one hand its statistical and factual character on the other side.

Part One
The Historical Consideration on the Meoseum
Chapter 1
The Conception of the Meoseum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 the Meoseum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agricultural labourer. Agricultural labourer means a wage-labourer who is employed under the conditions of capitalistic agricultural organization involving the techniques and methods of organization of a profit oriented management.

The conception of the Meoseum, who is employed in Korean agricultural society can be grasped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particularity of Korean agricultural economy. The Meoseum is not the relic of slavery as is asserted by "In Jeong Shik," and must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feudalistic tenants or half-serfs and the wage earning daily worker as well as agricultural wage labourer. The Meoseum is engaged not only in farm work but also in the employer's household matters, not only in the daytime but also at night. He is usually included as a part of the employer's household and lives together with the employer's family. Also, he is supplied clothes, food, wine, cigars etc., from the employer.

In a word, the Meoseum is defined as a servant who is employed in the form of wage for a certain period (10—11 months). The relations between the Meoseum and the employer have not only an aspect of civil law but also an aspect of personal and moral relations of master and servant. This is the reason why the problems of the Meoseum can hardly arise as a social matter.

The Meoseum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1) "Sang (Best class) Meoseum who is generally well experienced in farming prac-

tices from 25—6 to 42—3 years old, (2) "Jung (Middle class) Meosseum" who is younger and older than Sang (Best class) Meosseum, (From about 25 to about 20 years old and From 43 to 52—3 years old) and (3) "Kkoldamsari" (low class of Meosseum) age is 20—17—8 years old and 52:3—55:6 years old. Of course the above mentioned classification is not exact. The groups are generally divided by their capacity for the labour.

Chapter 2

Social Origin and Changing Pattern of the Meosseum

Section 1. Origin of the Meosseu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social economy, the Meosseum, the rural employee, on the farm has changed in hi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lationship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earlier stage when the Meosseum was originated, is much different.

By etymological study of the word, "Meosseum," we can ascertain that it was derived from a word that meant "man" in the time of the Silla Dynasty and that then there were no Meosseum as rural worker because of the dominance of the slave system.

Thus we can suppose that the Meosseum was originated in the time of early feudal society or late Silla (about the tenth century). This opinion requires one assumption that the Meosseum was originated from the existence of the middle class of farmers, who were independent of slave labour. According to the literature, it seems that the Meosseum was already existing even in the beginning of the Lee-Dynasty (about five centuries ago). Though it was originated owing to economic difficulties, it might be said that its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the personal ranking system which was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feudal society.

In feudal society, the number of Meosseum, who were created

from the poverty of the oppressed class which belonged to "Sang-min" or the humble, was dependent upon that of the number of independent farmers who could demand them. Absolute and relative increase in agricultural population created difficulties for the small or agricultural farmers which resulted in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of farmers. Owing to this reason, the demand for the Meoseum gradually declined. On the other hand, it may be said that the aggravated poverty of farmers owing to intensified exploitation, increased the number of people falling into the Meoseum class.

Section 2. The Meoseum and the Emancipation of Slaves

In 1894, the so-called Kabo Reform supported by "Kaewha-Dang" (Pro-Japanese group), intended to abolish feudal subordinate relations of Korean society and to modernize the social order.

In spite of these efforts, such a movement lacking a modernized economic background consequently failed to yield any substantial social change towards modern society. Thus, the emancipation of slaves had little effect on the status of the meoseum.

Section 3. The Invading Japanese capitalism and the Meoseum

The modern private land owning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Japanese capitalism in Korea opened a broad channel for class division of agricultural society. Peasants who had been separated from private land ownership, couldn't be converted into urban labourer, or agricultural wage labourer, because exploitation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and the high rate of feudal rent, worked to retard normal development of the capitalistic mode of production in the agricultural field, while Korea's own industrial development had been checked by monopolistic Japanese industries. These factors forced the Korean farmer to become

small-scale farmers, tenantfarmers and Meosome, and thereby reproducing the feudal semi-serfdom relationship in changed forms.

Section 4.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Meosome

Agricultural population has greatly increased since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in 1945. Growth of Agricultural population would be explained partly by the discontinuation of many factories owing to Japanese evacuation, and partly by the repatriates from overseas. In addition to this, intensified poverty of farmers, e.g. intensified small scale farming resulted in an increased number of Meosome, showing no betterment in the hitherto personal and conventional relations which dominated in feudal society.

Part Two

The Meosome and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Chapter 1

The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The peasant movement which evolved after the world war II. appeared as an anti-land lord movement. Therefore this movement was principally limited to the group of tenants who had relations with land owners, but excluded landed farmers and the Meosome. As long as the peasant movement is limited within the context of anti-land-ownership, it is not necessarily regarded as a dangerous thing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But when the land-ownership is taken to mean property ownership in the sense that capital ownership is, an attack against land ownership also means an attack against capitalism itself. If this is true, anti-land-ownership can not be neglected from the view point of the safety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 especially when the socialist movement menaces the capitalistic society. These facts indicate the importance of economic and political solutions for agricultural

problems, mainly the farm land problems. To meet these problems agricultural land reform was necessary, the important significance of which was that the mode of capitalistic production did not require the participation of the land owner in the social production organization. Capitalism dissolves the relics of precapitalistic society and creates new relationships in land ownership in the agricultural field.

Chapter 2. The Progress and Contents of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Since the beginning of 1947, the argument for an agricultural land reform had been brought forward by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e Government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The Act of Agricultural Land Reform consists of 6 Chapters including 29 articles which was published on June 21, 1949 as public law 31. It was later amended by increasing the reimbursement amount (Price of divided), and published as public law 108.

After this the implementation order for the Law was issued on March 25th 1950 and the implementation regulation for that on April 28th 1950, Both were published, thus the preparation by Law for agricultural Land Reform was finished, and it was ready to be put into realization. But its realization was hindered for a time during the Korean war, with the exception of Kyeonsang Nam-Boock Do. After the Autumn harvest of the same year (1950) it was put into effect Throughout Korea.

The contents of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held that the vested land (owned by Japanese before the Liberation) and the land above 3 Jeong-bo owned by the land owners, was to be bought by the government, and redistributed to the small-scale farmer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land price would be payed which amounted to

150% of an average year's crop (1937—1938) the land price was to be paid over a five year period.

Chapter 3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and the Changing Pattern of Rural Society

As long as the purpose of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exists in the fundamental theorem that the demand of the peasant movement must be directed toward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apitalism against feudal bondage, the original aims of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have not been completely achieved and have been distorted somewhat.

That is to say agricultural Land Reform in Korea has resulted in a compromised from allowing for less sacrifices of the interests of land owners who are aligned with national capital. Monopolistic national capital has been re-organizing the structure of the agricultural economy by using the relics of the feudal system which are favourable factors for the land owners. Under such an agricultural land reform, agricultural development can not be expected. In some cases such a distorted reform is not only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economy but also leading farmers into poverty. These are the facts of the present agricultural economic situation. These facts can be shown in certain figures; the Government bought only 55% of the land it planned to buy, and redistributed only 69% of land that it did purchase. Redemption for the land redistribution had resulted in only 73% of the expected amount by May 31, 1955,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land owners remained at only 28% of the required amount in monetary terms. Thus, Land owner have been sacrificed for the formation of national capital.

Chapter 4 The Life of the Meoseum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of 1949 which made obligatory the redistribution of all land owned by absentee landlords and arable holdings in excess of three Choongbo to the farmer who was landless or owned, if at all, small sections of land, did not include the Meoseum in its provisions.

The poverty of rural society after the Agricultural Land Reform, along with the deterioration of industrial equipments due to Korean hostilities, was accompanied by rapid increase of relative surplus population. This occurred despite of the fact that almost all of the young generation were drafted for compulsory army services.

The Meoseum was the first among the villagers to be enlisted. The elderly and younger Meoseum has been substituted in the place of the young group who entered military services.

The deficit in the supply of labour power has brought about a rapid increase of the Meoseum's wage. However, this is not true of the wages of elderly and younger labourers.

The poverty of rural society, accompanied by the accumulation of relative surplus population has made it impossible for the agricultural labourer to be modernized. Moral and personal relations with their employer are still prevailing as they have been in the past.

(continued)